朝鮮日報
第二夕刊
二十六日(火)
本紙朝夕刊十二面

趙膏藥

佛印方面의 援蔣血脈 龍州를 又復爆擊斷行

戎克五十隻爆碎外戰果多大

【○○基地二十六日發同盟】佛印方面으로부터의 援蔣루트의 起點龍州는 昨年來 我南支軍에게 徹底的으로 覆滅되엇스므로 이 補給路는 一時連絡을 切斷당하엿는데 支那軍은 最近再次까솔린 軍需品等을 蓄積中인것을 察知한 我南支軍鈴木、後藤、新澤、長瀨等 各部隊는 二十五日午後 멀리 龍州에 對하여 反復爆擊을 敢行하고 그 援蔣輸血의 最後의 꾀까지라도 남기지안토록 이를 擊滅하엿다 堂堂한 編隊의 我荒鷲가 龍州上空에 達하자 地上의 支那軍은 士氣阻喪되엿슴인지 一發의 對空射擊도 하지못하엿다 編隊를 헤친我機는 空中을 亂舞하고 먼저鬱江兩岸에 山積한 까솔린罐에 必中彈을던저 合計五百에넘는 罐은 곳 火炎에싸혀 眞紅의 火焰은 空中에 뻐처 黑煙濛濛하야 때마침 斜陽을 더펏다 이어서 鬱江의 敵軍需品輸送用大型戎克約五十隻을 襲擊하고 이를 擊沈, 搭載한 까솔린은 河面에 流出되엇스므로 鬱江은 火河로 化하엿다 그리고 悠悠旋回를 繼續하여 市內外各處에 隱蔽된 彈藥庫를 發見하고 附近外國權益을 巧妙히 避하면서 이들을 完全히 爆碎시켜 多大한 戰果를 거두고 全機悠悠히 ○○地의 基地에 歸還하엿다

感激의 三千遺兒 今日、社頭對面

【東京電話同盟】九段偕行社前에서 뻐스를 내린 遺兒들은 大鳥居를 우러러 떨리는 가슴을 안고 스스로 옷깃을 가다듬어 肅然히 九段을 올러갓다 깨끗이 掃除된 玉가튼 자갈길 兩側의 櫻木의 꼿봉오리도 매서웟다 遺兒들은 一步一步 父親을 思慕하는 마음이 떨리는것가태다 二十五班에 分한 遺兒들은 一旦 休憩所인 國防館前의 大天幕에 들어 第一班 宮崎支部의 百三十三名을 第一陣으로 午前十時 四十分부터 對面을 開始하엿다 破格의 恩典으로서 特히 允許된 昇殿에 압서 北入口에서 신발을 닥고 洗手盥할때는 벌써 적은가슴은 緊張하여 拜殿下北側附廊에 六列 又는七列로 整列、森嚴한가운데 修祓을 하고 一步一步 昇殿한다 고요한 殿內에는 기침소리하나업섯다 이윽고 代表兒童男女各一名이 玉串을 바더 半步나아가 이를 奉奠하고 다시 半步退하여 泣한다 非常히 緊張한 얼굴로 一同은 二拜 御靈을 呼하는 拍手를 하고 更히 一拜한다 父親인 神、그 父親에 向하여 무엇을 祈禱하고 무엇을 告하는지 堂 바게모힌 사람들도 머리를 숙인다 遺兒들의 幸福을 비는것이다 全國民의 소리가 일어나는 尊貴한 一瞬이엇다 이리하여 서로맛고 魂과魂과는 어린가슴에 更生의 感銘을 주고 午後二時五十分 三重、栃木、島根三縣을 最後로 靖國神社昇殿參拜를 마치엇다 그리고 九段參拜의 各班는 이어서 明治神宮으로가서 破格의 全員昇殿을 允許받고 午後五時半 參拜를마치엇다 이로써 行事의全部를 마치고 歸途에 就하엿다 二十七日에는 遊就館、國防館、海軍館、繪畵館、寶物殿等을 뻐스或은 徒步로 見學하기로되엇다

遺兒代表에게 朝香總裁宮殿下賜詞

【東京電話同盟】二十六日의 軍人援護會式典에서 總裁朝香宮殿下께서는 遺兒代表에對하여 左와如한 고마우신말슴을 賜하옵섯다

여러분은 이번에 恩賜財團軍人援護會主催로 靖國神社에 參拜次 上京하여 只今 여기에서 매우 元氣에 찬 여러분을 본것은 매우 기쁜일이다 昨日은 皇后陛下께옵서 고마우신 뜻을 賜하옵신바 皇室의 軫念에 기피 感激하는바이다 여러분의 父親은 滿洲事變과 今次 支那事變에 天皇陛下를 爲하여 목숨을 바치엇다 여러분은 父親의 勳을 기피 마음에 새겨 健康에 注意하고 學業에 熱心하여 훌륭한 日本國民이 되어 家門의 榮譽를 더려피지안키를 바라는바이다

岡村寧次中將 着京即時로參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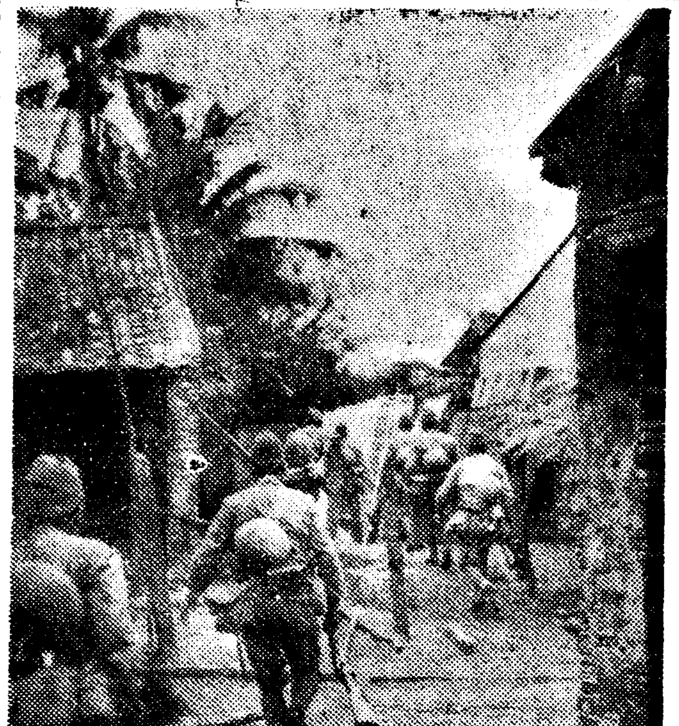
【東京電話同盟】漢口攻略戰以來 中支方面에서 赫赫한 武勳을 세우고 이번에 軍事參議官에 親補된 岡村寧次中將은 二十六日 午前九時四十分 東京驛着으로 歸還하엿다 驛頭에는 至誠하옵신 側으로부터 御差遣의 侍從武官、秩父、閑院、賀陽、梨本、東久邇各宮殿下의 御附武官을 爲始하여 古莊、井上、峯州各大將以下 陸海軍將星이 出迎하여 歸還人事를交하고 卽時宮內省에서 보낸 馬車로參內하엿다 天皇陛下께옵서는 午前十時三十分軍裝으로 表御座所에 出御, 閑院參謀總長宮殿下、畑陸相侍立裡에 拜謁을 吩咐하옵시엇다 將軍은 在任中의 軍狀을 仔細히 奏上, 恒恐하옵시게도 陛下께옵서는 優渥하온 御嘉賞의 勅語를 下賜하옵섯다 이어서 將軍은 內謁見所에 參進 皇后陛下께 拜謁하옵고 거듭御慰勞의 말슴을 拜하옵고 恐懼感激하여 退下하엿다 이날至誠하옵신側에서는 銀花瓶과 金一封을下賜하옵시어 御慰勞하옵섯다

遺兒들에게 警視廳保健隊編成

【東京電話同盟】社頭對面次 全國으로부터 上京한遺兒에게 萬一의일이잇서는 안되겟다고 所轄署와 連絡하여 宿舍關係料理人 女中家族等一千二百名에 對하여 强制種痘를實行하고 檢便을 實施하여 傳染病等의 豫防에 萬全을期하고잇는데 다시二十五日早朝로부터 遺兒들의保健防疫衛生各係에서 二十名의遺兒保健監視隊를編成、各宿舍를 臨時臨檢하여『宿舍가좁지나안혼가』『寢具什器가不潔지나안혼가』『宿舍從業員家族에 保菌者는업는가』『非衛生的이아닌가』等에對하여 檢索하고 不適當한것이잇스면 거처업시改善시키기로되엇다 그리고 宿舍從業員으로서 未種痘者의 豫防注射未濟者의 發見에努力하여 强制的으로 豫防注射를 施行하기로되엇다

瓦斯用木炭法案 審議未了는確定的

【東京電話同盟】二十五日 午後衆議院委員會는 日本瓦斯用木炭株式會社法案審議를 續行하야 高田耘平氏(民政黨)로부터 政府에對하여 本會議劈初에 國策會社에對한 資料提出을 要求하고잇는데 東北興業 日本發送電 日本硫安三社分만 提出되엇슬뿐으로 다른것은 아직 提出되지안햇다 따라서 本法案審議上 資料의提出이 엇기까지 審議를 延期하여달라고 말하고 採決한結果 高田氏의 動議가成立되어 散會 同委員會는 二十六日도 審議를 續行할터인데 高田氏要求의 資料에對하여는 政府로부터 提出할 意思가업고 民政 政友久原派等 諸派의反對는 더욱 强硬하여 本案의 審議는 未了에 하게되엇다



海南錦山市內敗敵掃蕩하는 橫田部隊와(上) 瑪家坡市內掃蕩에 活躍하는 海軍部隊

最終日의貴院本會議 殘餘法案着着上程可決

【東京電話同盟】最終日의 貴族院本會議는 午前十時二十二分開會卽時 日程에드러가

一、臨時資金調整法中改正法律案

一、支那事變에關한一時資金으로 交付할公債發行에關한 法律案 (政府提出衆議院送付)

을一括上程하고 委員長西尾忠方子(研究)로부터 委員會에서의經過及結果를報告 臨時資金調整法中改正法律案에 關한質疑를하기爲하여 小山松吉氏(無所屬)登壇 歷代內閣이 敢히하지못한것을 報國債務의美名下에 敢行한 政府에 承服하기어렵다 藏相은 富籤이아니라고主張하지만 實際는 富籤과다름이업다 藏相은 이러한方法도不得已하다고 答辯하엿는데 政府當局에서는何等의 硏究準備도잇섯다고할수업다 참으로 寒心에不堪하는바이다 零細한資金吸收에는 그財經方策을 樹立하여야한다 政府의再出發을바란다고反對意見을 表明한다음 臨時資金調整法中改正法律案을 採決한結果 多數로써委員長報告대로 可決確定한다음 昭和十五年度一般會計歲出의 財源에 充用하려고 公債追加發行에關한 法律案을 一括上程 採決한結果 委員長報告대로 可決한다음 石炭配給統制法案(政府提出衆議院送附)에關하여 委員長溝口直亮伯(硏究)으로부터 委員會에서의 經過와 結果報告를 行하고 採決한結果 全會一致委員長 報告대로 可決確定하고午後零時休憩하기로되엇다

米立體的海軍演習 列國海軍注目의的

【紐育廿五日發同盟】米海軍本年度大演習은 오는四月一日부터太平洋上에서 開始되는바 歐洲의第一次 第二次大戰을보고 更히 極東의 日米關係가 緊張되고잇는이지음 作戰計畫이 布哇를中心으로 北은아륫산群島까지 미치는未曾有의 廣範圍에亘하는바 이大演習에 對하여 外國海軍當局는 非常한 關心을 가지고잇다 그리고 海軍消息側에서는 今次大演習의 特徵으로서 다음 諸點을 特히注目하고잇다

一、洋上基地의利用 演習計畫는北은아라스카, 아륫산群島에서更히布哇, 아라스카, 파나마의三角形防禦地域을거처 멀리西方밋드웨크及 광島附近까지 進出할것으로보이는데 飛行隊와 小型艦艇의活動는 이外에布哇南方의존스톤, 파르미라, 칸톤諸島에로하여 展開되어 各島에設置된 飛行基地의 完全한利用

等이 以前 即再昨年의 大演習에 比하여 가장 顯著한 特徵이다

一、造船技術上의 試驗 米海軍의자랑인 디젤汽機附潛水艦과 高壓蒸氣利用의 新銳驅逐艦의 實用性이 今番演習에서 試驗될러이다.

一、英獨海空戰의 敎訓 參加艦艇百四十隻、飛行機四百 參加將兵四萬五千二百假裝、黑白又는 黑潛艦隊에 갈리어 對抗、英獨海空戰의 敎訓을 參考로 空中에海底에亘하여 가장 實戰에가까운 現實的立體戰이 展開될러이다

一、布哇의 設備試驗 演習의 中心地인 布哇가 果然 大艦隊收容設備로 充分할지어떨지 解決되며 素的部隊의主力는 數個月前부터 이미 眞珠灣에 와잇는데 加州에서 來週出發하는 戰鬪部隊의 到着과 함께 布哇空前의 大艦隊를收容할터 眞珠灣近海에는 아마 潛水艦防禦網을 벌리베풀것으로豫想된다

維新政府解消(二十九日) 二十八日記念典擧行

【南京二十五日發同盟】新中央政府成立을契機로發展的解消를 遂하기로된 維新政府는 二十六日午前十時부터正午까지 最後의臨時議政會議를열어 梁鴻志行政委員長以下各委員、部長出席、一切의未定事項의 處理에關하여 協議를거듭한結果 各委員部는 二十七日까지 一切의處理를終了한後 二十八日午前 二周年記念式典을 擧行 二十九日에 新政府에모든 引繼를하여 過去二年間의 光輝잇는 歷史의幕을닫기로되엇다

中政委員會 本格的活動開始

【南京二十五日發同盟】新中央政府의 最高指導機關인 中央政治委員會의陣容은 同委員會의 組織條例에依하여 二十四日 正式決定을보앗는데 汪主席은 近間 이들委員中으로부터 銳達의士七名內外를指定하여 常務委員으로하고 更히速히秘書廳의 組織規定을定하고 秘書廳을 設置하여 正副秘書廳長을 任命하고 오는三十日 維新政府는 名實共히 發展的解消를遂함을 기다려 國府還都 維新路 國民政府內에 새로 同委員會를 設置하고 各專門委員會의 組織規定을公布하고 이에基하여 法制、內政、外交、軍事、財政、經濟、敎育等各專門委員會를 設하여 新中央政府를推進시키려고 本格的活動을開始하

世界一、米重爆擊機 時速二百哩 近近完成 航續力六千哩

【華盛頓發電】米國陸軍省는 重爆擊機로 航續距離六千哩이란 性能을가진 世界의 最大爆擊機가 航空會社 산타·모니카工場(칼리포르니아州)에서 數日內로竣工될豫定이라고 發表하엿다 右超重爆擊機는 八月前에 建造에着手한以來 工事를急히한 劃期的軍用機로서 翼長二百呎 四發動機裝備 時速二百哩以上의 快速을낼수잇다한다 同機는 十名의乘組員과함께 二十八噸의 搭載物을 싣코 高度三萬呎까지 上昇할수잇고 또 六千哩以上 無着陸飛行을 할수잇는 驚異的性能을 가진것이라 고한다 그리고 同機는 爆擊機로서의 크기와 速力、航續力積載力等을 가장理想的으로綜合함에는 如何히하여야 하는냐하는從來의 懸案의 하나를解決한것이라하여 이를 重視하고잇다 그리고 右超重爆擊機의 發表와함께現在의 三인치 標準高射砲보다優秀한 最新高射砲와 五百미리野戰砲를 發表하엿는데 後者는對戰車砲로서 極히强力한것이라고한다

英、新聞記者追放 羅國、對獨經濟通牒記事問題로

【부하레스트二十五日發同盟】羅馬尼亞政府는 二十五日로이터通信社 부하레스트特派員루이스오·엘氏를 國外追放處分에 附한다고發表하엿다 이追放은 오엘氏가 最近獨逸의 對羅國經濟通牒提出說에 關하여 惡意의報道를한데 因한것인데 羅國에 重要資源獲得을圖하고 英國과分裂이되어 角逐을 激化하고잇는때인만큼 羅國政府의 右措置는 各方面의注目하는바가되엇다

佐藤代議士逝去

【新潟電話同盟】新潟縣第二區選出民政黨代議士佐藤與一氏는 二十五日午後七時三十分 腦溢血로 新潟縣中蒲原郡龜田町自宅에서逝去하엿다 享年五十九

更生支那의首都 南京의興亡盛衰

待望의 新中央政權은 그光輝잇는發祥을 南京에서 내드딋것다 이리하여 일짜부러의 抗日首都南京、그리고 維新政府誕生의地 南京은 日支를連하는 新秩序建設의 中心地로서 世紀의 脚光을 밧게되엇다

南京은 支那政治의、軍事、經濟、文化의 中心地인것은 贅言할必要도업다 中央政權이 首都를 南京으로한것은 緣故가잇는것이다 興亡變遷、南京을 에워싸고 되푸리된 政爭과 流血의歷史回顧는 南京이가진 政都로서의 또는 軍都로서의 重要性의 再認識에 지나지안는다

그리고 이것을 新生支那의首都로서 更生하는 南京에祝福의 膳物로 드리기로하자

南京이란것이 支那歷史에登場한것은 千七百年의옛적 後漢末의 群雄의覇業과 權謀의術策이 있는 吳에 天下를다툰 孫權이 건業을 이곳에求하여『建業』이라고 한것이 그初이엇다 그後東晋의元帝는 建業을『建康』이라고 改名하여 都를 宋、齊、梁、陳의 南朝四代에 이르기까지의 所謂六朝文化는 三百五十年에 亘하여 繁華에서絢爛의 꼿을 피우고잇섯다 王羲之、王獻之、顧愷之의 書畵를 그리고 江南文學의 耽美的 學美術의 精粹를다투고 或이며 當都의 南京史에 華麗한 文化都市로서의 一페이지를 加한것이다

隋의 文帝가 南北朝를 統一하고 都를北方長安에 옴긴後의 南京는 唐、五代、北宋、南宋 이를뒤하여 八百年 明朝에 이르기까지 置都를받지못하고 大江南의文化도 어느사이에 그림자를 감추어 流源한一寒都가 되어버린것은 時代의潮流가 그러케만 만든것이다 그러나 五代에는『江寧』이되고 元의 支那統一、明太祖의元討伐等의 戰亂의 餘波도 南京에까지는 미치지안하고 文化의痕跡만이 追憶되고 사라진데 不過하엿다

支那를統一한 明太祖는 南京의 重要性을보아、長安으로부터 南京에 都를 定하엿다

明太祖洪武四十八年、成祖는 都를다시 北方燕京에 옴기고 이곳을『北京』이라고 稱하엿以來 南京은 또 政治的·經濟的으로 北方北京과 對立的으로 金陵은 文化의 中心地로서의 本來의姿態에도라가 文化의 發展을 보게되엿다 그러나 明의末期 滿洲에서일어난 淸朝가 明을 滅하고 南京은 淸朝의 支配下에 들어가게되엇다

太平天國의 洪秀全은 上海에서 南京으로가서 一擧에 南京을 略取하고 太平天國의首都로서『天京』이라稱하고 淸朝軍을 應戰하여 十數年間의 戰亂을 繼續한 淸朝軍의 曾國藩의 活動으로 遂히 天京은 一敗塗地하여 南京은 淸軍의入城을 마지하엿다 所謂長髮賊과 淸軍의 戰亂은『城內에生物가업서젓다』는 慘狀을 呈하고 南京의 繁榮은 이때 破壞되고마럿다 長髮賊의 亂이끗난後 南京은 復興하여 下關港의 開港、鐵道의 敷設等이잇서 近代都市로서 놀라운 發展을하바 明治四十四年辛亥革命勃發는 세번째南京을 動亂의都로하엿다

孫文을臨時大總統에推戴한 革命軍은 南京에假政府를두어 中華民國의 首都로定하엿는데 袁世凱와의抗爭에 敗北하여 孫文等이 海外로亡命한後는 袁의武力彈壓의命令을바든張勳이 暴威를떨치어 南京의革命軍은 一時全然자최를감추엇다

다시 擡頭한革命軍은 北伐軍總司令蔣介石이 武昌漢陽을무찌르고 南京에到達하여 氣勢를올려 南京을占領하여 國民政府를樹立하여 南京을永久히首都로서 內外에聲明하엿다

抗日의 策源地가된南京、蔣의 新生活運動의 中心地이어던 南京、그리고 支那事變勃發後 抗日本擴大된南京、果敢한 我荒鷲의空爆下에 떨든南京、이어서 皇軍에 占領된 南京은 아직우리記憶에새롭다

皇軍占領後의 南京은 容共抗日을 根幹으로한 舊秩序는 壞滅되고 反共親日의 新秩序는 驟進步하여 明朗한 都市南京으로서 新生하여 이에新中央政權을맛게된것이다

定例局長會議

總督府定例局長會議는 二十六日午前九時半부터 第三會議室에서開催、山之內臨軍御用掛로부터最近의戰況說明이잇고 穗積殖産局長으로부터 渡東中의要務報告를 비롯하여 各局長으로부터 所管事務報告가 잇섯다 그리고同十一時에 散會하엿다

人事·集會

▲金大羽氏(全南內務部長)二十五日夜入京 朝鮮호텔에 投宿

▲梶川裕氏(殖産局水産課長)二十六日『아까쯔기』로渡東

▲眞木猛氏(京城職業紹介所長)新任人事次 二十六日來社

▲孫秉道氏(東興銀行庶務課長)三月二十二日 楊州郡馬山面의 里自宅에서 遭祖母喪

八面鋒

오늘로써 第七五議會도 終幕。

◇

百六十億圓의 豫算案이 通過되고、事變處理方針이 確立되다。

◇

今期議會의 收穫、만커도 他議會에 比할바 아니지만。

◇

齋藤君의 除名、各政黨의除名、離黨、決裂을 본것은 不祥事。

◇

어로부터 百六十億의 돈이 러질터니 物資貴한今日 惡性 인플레를 警戒하여야겟고、

◇

汪政權이 커가니 帝國의英米蘇와의 對立이 尖銳할것을 覺悟해야 할일。

◇

酒、麥酒、砂糖價를 引上、酒黨、甘黨어 다 打擊이로군。

◇

入學難에 우는生徒 學父兄이、凡幾何?

◇

一級에 十人增加라도 十數校增設만 하고 二部制、夜間制를 認定하면 倍 三倍를收容할수잇슬터。

◇

當局은 이慘狀을 보고 ·時急한 對策이 업는가。

朝鮮同胞に告ぐ!!

諸君은바른이름을選定하라

紀元二千六百年紀元節의佳節을卜하여 朝鮮同胞에氏名改姓의 劃期的制度가實施되고 이미京城에서는 李光洙氏는『香山光郞』이라고 또慶北道의 名士는『文明崎』라고 京城府의 梁川氏는 … 改氏名을 斷行하는 朝鮮同族에게 一層에 힘찬 쌍步를 것고잇다 그러나 이를勸하는데는 法則이잇다 이法則에依치안코 命名한다면 何等의價値가업다。

名은물을나타낸다 는말은千古의格言이다 또사람은姓名의適否에依해서 一生의運命을 支配한다。故로한번姓名의法을그릇치고 一生에向하여 不知不識에 그自身그子孫의 運命을 左右하게되는것이다 바더今日의大成功者도明日은一轉大悲運에 빠지는 不幸을 招來하는原因이된다。

本社는 茲에同胞諸君의 幸福을爲하여命名法則을 詳述한大著의寶典『撰名學大觀』을推奬코同胞諸君이 速히本書에依해서 良名을撰擇하고 天運을發揚하고적게는一家의和樂크게는國家의福利를增進하고 東亞建設의 一大使命에協力하시기를切望해서마지안는다

撰名學大觀 (美術和裝 定價二、五〇 送料四九)

天龍十一世宗家 橘丁瑞師著

本書는 撰名學界의權威橘丁瑞師가秘傳을公開하여서누구나 運命을推斷코또는 改名出産兒等의 命名撰擇에便케하기爲하여 그蘊蓄을傾倒하여著述한것이다

大阪市北區堂島上三丁目三

發行所 萬仲社出版部 振替大阪二九八番

改氏名에際하여 命名의選定을希望하는분은 現在名及年齡을明記하고 一人에對하여料金五圓也添附直接左記로申込하시압 宗家에서는 可及的現在名에까가운文字를써서良名을選定코懇切한說明書를添附하여郵送합니다。

大阪市天王寺區伶人町九六

天龍十一世 宗家 橘丁瑞

必讀

肺患

診斷常識

…당신은…

●약간기침과 담이나오지는 안는가

●저녁수저해가지는안는가

●三十七度一二分의熱이每日午後夕陽에걸처서 나지나안는가

○盜汗과 不眠이 繼續되지나안는가

●어깨가 몹이무겁고 胃腸도나쁘고 食慾不進의 날이繼續되고 動悸가나고 숨이갑브고 여개가결리고 가슴이 아프지나안는가

●이것은肺病初期…의症狀입니다…

○기침이 만어지고 담이 만코 때로血線이 석기지나안는가

○貧血과 發熱이 더하고 顔色이 나빠지지나안엇는가

○每日三十八度가차운 熱이나지나안는가

○頭痛、不眠、喀血、泄瀉、便秘、胸痛가튼 苦痛이업는가

…이것은肺病의第二期症狀입니다…

그러나 恨歎마시요 正當한療法으로

…治療됩니다…

肺病은! …正當한療法…

肺알는이는 只今곳『朝鮮日報』라記入한 葉書로 左記의寺로 보내시요 當寺治療法을가르친『肺病治療의原理와 寺傳秘方公開』『光明のあなたへ』의二冊을

無料送呈 합니다

빨리이가르침으로 肺病 肋膜炎을 征服하라

大阪府布施市 功德山 德林寺

飛び散らず、お德用な

仁丹粉齒磨

便紙大寶典 日本一完備せし

便紙에關한것은무어던안다

特別景品付大特賣!!

組合한式과新案辭典式의長所를採擇한 新時代에適合한新講義를한無比의名著

第二冊附錄 字くづし辭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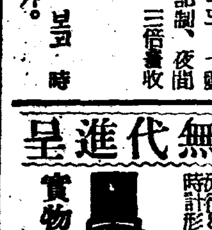
出征士에게보내는 慰問手紙文集

體裁 四六判 紙數六百餘頁

大特價 一圓六十錢

大景品『朝鮮日報』愛讀者라고明記하야 註文하시는者에게限하야 上揭한辭典普及의大宣傳特別大景品으로 一個씩 無代進呈이올시다

無代進呈



東京·中野小瀧 振替東京一五五五四四 積文堂特賣部

日本勸業證券株式會社 京城支店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 電話本局②四〇五四番·振替京城二九七番

紀元二千六百年記念

愛國福合セ債券 興亞福合セ債券 賣出

六枚一組每日抽籤あり案內書欣呈

[illegible]

藥草種苗 果樹苗木 蔬菜種子 生産販賣

京城帝國大學附屬生藥研究所 …

長壽農園 京義線沙里院驛前

改名命名

創氏오라! 무르라!

姓名만으로 사람보지아니하고 판단하는 先生의神秘한 姓名學으로 후회업시지으라

京城府櫻井町一丁目四六 松岡

伊豆椿ポマード

봄과가튼 훌륭한 整髮感!!

大島椿本舖

N07

人工榮養의必需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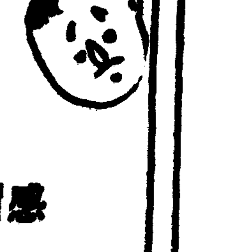
犬印滋養糖

牛乳와가튼결코 母乳와가리안는 犬印滋養糖

和光堂

各地藥店에有합니다

感冒に



胃腸障害其他副作用絶無

봄새感氣는더치기쉽습니다。安全하고効力잇는實效散으로 곳治療하십쇼!

(定價)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一圓 三圓 五圓 藥店에有함

東京·神田明神下 實效散本舖 師岡天然堂 振替東京一二三七一番

感冒解熱 特效藥 實效散

NO8

米穀檢査所係官動員 各種惡弊芟除方針

經警囑託으로任命、取締權限을賦與

當局食糧對策에萬全企圖

현하조선의식량문제는 가장심각한바잇서서 관계당국의 근심걱정이 끈칠새가업는현상인데최근에와서는 곡물의 매석(賣惜)매점(買占)과 비밀거래등 악폐로 인하여 미곡이 편재하는경향이 농후하므로 총독부에서는 경제경찰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처체하는중이나 원악업자나 또 수요자가 모두 닥기고닥겨서 얼마는지 교묘한수단방법을 생각해가지고 감시의눈을 피하여감쪽가치 악질적거래를 계속하는형편이다 그래서 총독부경무국에서는 여러가지로 그대책을강구한결과 전조선각지에 산재하여잇는 약삼백개소의 곡물검사소장(穀物檢査所出張所長)을 동원시키기로 결정되엿다 그대용인즉 현재식량중에도제일 문제되는것이 미곡인데 미곡은 어떠한 미곡을 불론하고 대개검사를 바더야만 매매할수가 잇스며 또는 다른지방으로 반출할수가잇는것이다 그러므로 미곡은 현미나정미를 불론하고 미곡검사소 또는 검사소출장소등의 검사를거처 나가게된다 그래서 검사소에서는 그곳에서 검사한미곡이 어느곳으로 가는것을알라고하면 알수가잇는것이다 그러므로 오는사월일일부터 미곡검사소장을경제경찰의 촉탁으로 임명한후 일반미곡에대한 경찰권을 부여하여 미곡의배급 미곡의반출 미곡의현재 미곡의 매석 매점 미곡의 비밀거래등 악폐를취체하기로되엿다

天道教兩派再合同

四月五日에合同大會開催豫定

대도주(大道主)문제로 분열되어신, 구두파로 나누엿다가 소화육년 일단합동되엿섯스나 그이듬해인 소화칠년에 또다시분열되어 세상의만흔 주목을이끌던 천도교(天道敎)는 그동안신구두파의 대표자가 수차협의한결과 동일주의적 입장에서합동하자는결론이되어 머지안허 정식합동대회까지여를 기운에 이르렀다 즉 삼세대도주 손의암(孫義菴)이 작고한후 박인호(朴寅浩)씨가 제사세대도주로 추대되자 이종린(李鍾麟)씨일파는 이를법통적(法統的)대도주라하여 종래의대도주와다름이 업다고 추대하고 이돈화(李敦化)정광조(鄭廣朝)씨일파는 박인호씨는 다만교직(敎職)에 불과한것이지 법통적대도주는 아니라는 견해로결국 분리되고말어 이종린씨일파는 천도교본부(天道敎本部)라는 간판을 내어걸고 구파(舊派)의 일홈을 가젓스며 이돈화씨 일파는 천도교중앙교회(天道敎中央敎會)라는 간판을 내어걸고 신파(新派)의일홈을 가젓든것이다 이런말성이 생기자 박인호씨는 대도주의직을 내어노코 은퇴하엿스나 신, 구양파는대립된채로 몇해를 지나다가 소화육년에는 전기한바와가치일단합동되엿스나 그이듬해에 또다시 의견충돌로 분리되어 그동안만흔 불미한문제를 이르켯스며 한회당안에서 신, 구양파가시간을 달리하야 예배를 보고 그교지(敎旨)도 신파는 천약(天約)구파는 교헌(敎憲)이라하여 외관상 상서롭지 못한점이 만헛섯다 그러나 사변이래 국내의 모든 정세가달라지고모든기관이 통일(統一)의 경향이 만흔때임으로 신파에서 솔선하여 구파와 합동하자고 제안하여 결국 양파통일에 이른것인데 오는사월사일 양파의 대회에서 정식으로 결의하여 사월오일천일기념일(天日紀念日)에는 합동대회를 열터이라 한다

舊派李鍾麟氏 談

원래가 천도교는 제일세 대도주 최수운(崔水雲)선생의 뜻을받드러 단하나의 교파이어야할것인데 중간에 일부러인 의견의 충돌으로 분리되엿스나 분리해나간 신파측에서 약간의의견상위로 분리해잇는것은 내용으로나 외관상으로나 미흡지 못하니 합동하는것이 조치안흐냐는 제안이잇서 오는사월사일의 전조선교도대회에서 결의하야 사월오일 천일기념일(天日紀念日)에 정식으로합동 대회를열려고 준비중이다

新派李敦化氏 談

오래동안의 현안이 해결되엿다 세음이다 오는사월사일의 지방대표자회의에서 정식으로결의하고 합동대회도 열터이다

渡航勞働者의 指導問題等協議

來月五日釜山서開催되는連絡會議

사변하에 경기조흔 노동시장을차저 내지로건너가는 노동자는 상당히격증하고잇서 그취체와 지도에관하여서는 조선과내지양쪽에서 긴밀한연락을 취하여 만전을 기할필요가 잇스므로 내월오일 총독부주최로 경남도청에서 내지도항 노동자의 취체에관한 연락회의를 열기로되엿다 조선측에서는 삼교경무국장(三橋警務局長)과 고천보안과장(古川保安課長)과 내무국계관 경기 경남 함경남북도의 경찰부관계관 내지측에서는 내무, 척무, 후생각성을 비롯하여 조선노동자가 가장 만히가잇는 동경의 경시청, 산구(山口)복강(福岡)좌하(佐賀)장기(長崎)복도(福島)산리(山梨)장야(長野)각현관계관이 출석할터이다 회의는 하로동안으로 도항취체와 밀항방지, 이주한뒤의지도와 취체책에대하여 협의하고 유일은 도항상황의 실지시찰을할터인데 도항문제에관하여 대규모의 연락회의를 하는것은 이번이 처음인만큼 적절한 취체대책이 나올것으로 기대된다

六寸兄을脅迫

金品强要

육촌형을 협박하여 돈을빼아스려고 무서운협박을한 아우—부내낙원정(樂園町)오십번지 서인석(徐寅錫)(二五)은 지난십오일 명륜정(明倫町)이정목육십륙번지 부호 서범석(徐範錫)씨를 차저가서 상업자금으로 삼만원을 청구하엿든바 거절을 당하자 이에원한을품고 이튿날인 십륙일『나는 철골조(鐵骨組)라는 폭력단의수령 이명(李明)인데 오는 이십일정오 소화통(昭和通)에 잇는 중국요리점 공화루(共和樓)로 현금오백원을 보내라 만일 이에 불응하던지 경찰에 밀고를하면 단원을만히 출동시켜 너의가족을 몰살시킬터이다』라는 무시무시한 협박문을 보내엇다 이협박문을받은 서범석씨는 후환을두려워하야경찰에 알리지안코 이십일에는 망서리고잇노라고 시간을 넘기자 저녁때에 이르러『너는나의명령에 복종하지 안는놈인즉 일간너의 가족이 몰살을 당할줄을알라 만일 지금이라도 꼿돈을보낸다면 늣지안타』는 협박문이 멧센지를 통하야 배달되엿슴으로 일이 다급하게된것을 느끼서범석씨는 동대문서에 비밀히알렷다

鷄林號快翔

【北京發同盟】 남경을 방문하려고 경성을떠난 계림호(鷄林號)는 쾌상을계속하여 이십륙일오후한시오십오분 북경비행장에도착할예정이다

路上擲柶大會

會員十三名檢擧

이십륙일오후영시반쯤 부내견지정(堅志町)대동광업(大同鑛業)부근 빈터에 열세명의남자가모혀서 한번에오원내기, 윷노름을하고잇는것을 종로서원이 모조리붓잡엇다 이들노름패는 경기도이천군(利川郡)출생 김상갑(金商甲)(三二)외열두명이다

記念植樹

총독부와경기도에서는 오는사월삼일 신무천황제일을 당하여 남산 약초관(若草觀) 경내에서 제삼십회기념식수를 거행하기로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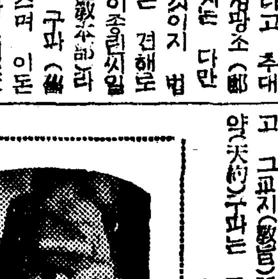
咸鏡線에衝突事故

南北行列車一時不通

이십오일 오후여덟시사십분에 함경선고원역에서 성진으로부터 함흥방면으로가든 임시화물열차와 반대방향에서들어온 후원열차가 전용선의 한곳에서 서로부디처서 화차다섯량이 탈선되엿다 그래서 남행여객열차가 모두 운전을할수업게되어서 경성으로부터 나진으로가는 급행여객 제삼백칠열차는 다섯시간 경성으로부터 청진으로가든 급행여객 삼백일열차는 네시간 청진으로부터 경성으로가든 여객제삼백이열차는 여섯시간이나 각기늦게떠낫다 그런데 사고발생즉시로 함흥으로부터 구원열차를보내어서 이십륙일오전네시에야 겨우복구되엿는데 이로말미아마 지난밤 함경선에서는 혼동을일으키엿다

"工夫될직한건 알려달라!"

新任朝鮮軍報道部長 倉茂少將記者團과會見



입성에 신임조선군보도부장 창무(倉茂)소장은 이십륙일오전에 조선군사령부에서 조선문당기자단과 처음으로 정식으로맛나보고 대개다음과가튼이야기를 하엿다 나는명치사십사년 시절에 평양에수학한일이 잇섯다 그때는 아직젊은소위이엿섯다 그리고 그뒤대정십일년 십이년쯤에 로서아출병당시에 원산에와서 로서아피난병을 잠간동안돌보아준일이잇다 그러므로 조선의사정은 전연모르는터이다 아프로 잘 공부하려한다 더욱이조선은 남총독이 말한바와가치 병참기지로서 중요한곳이므로 여러가지로 책임이무거운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공부될직한것이 잇스면 알려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는행동으로하고십다 여러분도그리알고 아프로 상종해주기를 바란다 또나는 소위 대접하기위하여 신문에 필요업는일을 써주는것을 실허하는 성미다 그리알고 이야기를들어주기를 바란다

皮革統制一層强化

自家屠殺에도가죽流用禁止

총독부에서는 중요한 군수품인 가죽자원을 확보하고저 피혁배급통제에 관한총독부령을 개정강화하여 이십칠일부 관보로고시하고 사월십일부터 실시하기로되엿는데 종래는장사로 소, 말, 양등을 도살하엿슬때에만가죽을 함부로 팔수업다고 규정하엿든것을 고처 팔든지 자기집에서 쓰든지 어떤경우를 불론하고 가죽은 일체자기집에서는 쓰지못하게제한하엿다 이와가튼 제한을받는 가죽은 소, 말, 노새, 나귀, 면양, 산양, 도야지의 여덟가지이다 이규측을 위반하고 가령 도야지를잡아 가죽을 재료로먹는다든지 하면모법(母法)인 수출입품등임시조치법(輸出入品等臨時措置法)에의하여 일년이하징역 또는 오천원이하 벌금에처한다

色鉛筆

만원전차문제는 더욱 중대화하고잇다 ▲지금까지의 만원전차 문제는 어떠케 해결하여야 겟느냐 고 야단하고잇는 통근시간에 학생, 회사원, 관청원들이 거의가튼 시간에 한꺼번에 몰려들어 어쩔수가업섯다는것이엇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벌써아침저녁 통근시간에는 급행버스를운전하고잇고 또 사월초하로부터는 급행전차제를 실시하기로하엿다는것이나 이러한묘안을 실시하기도전에 만원전차문제는 다시다시 해결책을 강구치안흐면 안될 새로운 문제가 또생겻다 ▲보라! 만원전차의소동이 아츰저녁 통근시간에만잇는것이 아니다 벌써 옛날이다 통근시간 아닌 때라도 한낫동안 전차마다 승객으로 만원패를 붓치고 달리는것이다 절믄 사람이면 어떠케 해서든 부벼대고 어지로탈수가 잇다고해도 전차를 두세대식 그대로 바라보내기 보통이고 부인네 노인네 아이들은 이십분 삼십분기다리다가도 그만전차를 못타는일도 잇다 ▲이가치 만원전차문제가 통근시간 아닌시간에까지 발전되엿는것은 근시간아니간에까지 넘어 사람이 만히 늘어 시내에서 [illegible]

朝鮮蹴球協會役員及事業日程發表

朝鮮蹴球協會에서는 지난三月二十四日午前十一時에 千代田그릴에서 評議員會와 代議員會를 開催하고 昭和十五、六兩年度의 評議員改選、役員改選、事業日程等을 다음과가치決定發表하엿다 그리고 朝鮮蹴球協會에서는 昭和十五年度의 選手登錄期日은 四月二十日까지라고하는데同期日內의登錄치아니한選手는 絶對로選手資格을 附與치안는다고 한다 그래서 本社主催인 第三回全朝鮮都市對抗蹴球大會의 參加할選手는 朝鮮蹴球協會에 登錄한選手에限하여 參加資格을認定케되엿다

1、昭和十四年度庶務報告
2、昭和十四年度事業報告

◇評議員改選
金東轍 玉聖彬 李榮敏 李成周 嚴興昌 金有亮 金允基 李丙學 李浤禧 暎河 金在弘 洪鍾洙 林炳赫 金瀚鼎

◇役員改選
▲副會長 黃明學 ▲理事 玉聖彬 金有亮 李成周 嚴興昌 金在弘 金允基 金瀚鼎 徐丙義 ▲主事 李榮敏 ▲常務理事 金在弘(會計)徐丙義(庶務)

1、昭和十五年度豫算(原案可決)
2、昭和十五年度事業計劃(原案可決)

◇今年度事業日程
▲第三回都市對抗戰(四月十九、二十、二十一、二十二日)朝日報社主催本協會主管▲全國選手權朝鮮豫選(五月十七、十八、十九日)十九日 ▲全國中等選手權豫選(七月十九日二十日二十一日)同上(大每主催)▲全國中等選手權大會 本會主管▲鮮滿對抗戰(未定)同上▲朝鮮神宮奉贊體育大會(十月)同上▲外來團體招聘(未定)▲綜合大會(十一月一、二三、四、五、五日間)蹴球祭▲第十回全朝鮮蹴球大會(三地方制)(十一月十五、十六、十七日三日間)▲審判講習會(隨時)

關西體育會定總

廿九日밤會館에서

【平壤支社電話】 平壤 關西體育會에서는 定期總會를 오는二十九日午後七時三十分부터 會館인 府內水玉里 東亞日報社平壤支局上層에서 開催한다는데 會員은 出席하여주기를 바란다는바 1、今年度事業及豫算編成 1、任員改選

遊佐二百에好記錄

【베노스아이레스廿五日發同盟】 南米行脚中의 水泳代表 遊佐、葉室兩選手一行은 二十二日 베노스아이레스에 到着하여 當地에서 엑시비숀개임에 好記錄을樹立하여 水上日本의眞價를 발휘하엿는데 廿四日로―인그俱樂部에서行한 엑시비숀개임에서 遊佐選手는 二百米自由型에 二分十二秒二의好記錄을내어 南米最高記錄을 樹立하고 遊佐選手는 昨日同會에서 百米自由型에 五十八秒八의大記錄을내어 當地水泳界에서는 同選手의强力과 日本選手의實力에 驚歎하엿다

ツカタニの パチヤヤマ

幸運의合格者

法學專門
[illegible]

淑明女專
【家事科】 [illegible] (以上六十三名)

京城齒專
[illegible]

高等商業
[illegible]

梨花女專
▲文科第一學年 [illegible]
▲家事科第一學年 [illegible]
▲音樂科 [illegible]
▲保育科第一學年 [illegible]
▲專修科第一學年 [illegible]

無試驗檢定合格者
[illegible]

京城醫專
[illegible] (以上一二八)

高等工業
▲紡織學科 [illegible] (以上五十名)
▲應用化學科 [illegible]
▲土木工學科 [illegible]
▲電氣工學科 [illegible]
▲鑛山機械學科 [illegible]

鑛山專門
採鑛學科 [illegible]
冶金學科 [illegible] 以上五〇名
鑛山機械學科 [illegible] 以上三四名 以上一五名

今夜의라디오

第一放送 ▲午後六時(東) 이야기 ▲六時三五分(東) 講演 ▲七時四〇分(東) 浪花節 ▲九時(東) 時局讀本 ▲九時一〇分(城) 時事 ▲九時二〇分(城) 青年時間

第二放送 ▲午後六時 童話 ▲六時三〇分 講演 ▲七時三〇分 講演 ▲八時 京城歌謠 ▲八時三〇分 라듸오小說 ▲九時 헤너―獨唱

學生募集 滿洲自動車專門學院 滿洲國公認 每月一日新學期開始

乳汁不足に ハリブマルト HALIBUMALT 効果 本位

外科 整形外科 美容科 醫學博士 李容卨 京城府堅志町一一八 (前中央日報社東隣) 電話光化門③ 2736番

新肌丸 新發明 速治劑 문둥병 癩病 火傷 手足痲痺 其他瘡瘍 白癜 紫癜 痲木 蟻行 癩痛症 京城府龍頭町 東都製藥合資會社

急告! 朝鮮農家 麻種分配機關 山東農園麻種部

地方 朝報案內 山羊讓渡 事務員 簡易生命 代理營業所長 生徒募集 賣地 支部長募集 鮮滿總務部

專賣特許 수후人絹을질기게하는 ツヨナール 新興織物保強劑 元賣發賣 高瀨合名會社 各地有名店舖에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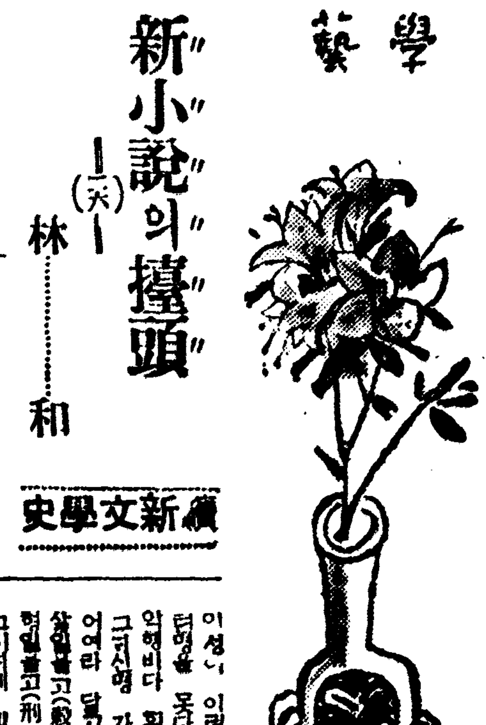
官認 京城高等簿記學院 第五十回生徒募集
官認 京城中等專修學院 第八回生徒募集
宣川中學講習所 生徒募集 平北宣川
生徒募集 朝鮮文化學院
ナショナル乾電池
피풍、옴、림질、매독藥專門 一次試用하시요 福來社
强力 淋治劑 タリトン 定價 三十錠 五圓 全國有名藥店에有함 慈善堂製藥株式會社
男子早
張世貞의流行歌 내이야왓나요 オケー레코드
激讀의新盤 復興의南道소리 沈奉事눈뜬데(上下) 林玉香 天下泰平 金江南月 王日然하다 獄中五更(上下) 五里亭離別 金演洙 빅타―레코드
白年雪 歌謠界の雄步 流行歌 一字一淚(八六六五六) 〃 나그네설음(八六六六五) 〃 어머님사랑(二〇〇一) 〃 杜鵑花사랑(八六一一) 流淚劇團(八六〇二) 태평레코―드

學藝

新小說의擡頭 —(六)—

林和

續新文學史



李人稙의作品(續)

歌詞는 마치 雜歌類의 一生을 叙寫한것처럼 雜歌歌다음에 雜歌로 끄치난다.

「어여라 달고
처지권속 다버리고
혼자가는 저신세
이제가면 언제오리
흥엄는 길이로다
어여라 달고
북산이 머다더니
지척에도 북망이로구나
황천이 머다더니
명정밋치 황천이로구나
어여라 달고
인간만사 뭇지마라
춘초는 년년록이오
왕손은 귀불귀라
어여라 달고
이성시 이러호라
덕행을 못다쌋고
악행비다 화사하니
그러신형 가긍호다
어여라 달고
살일불고(殺一不辜)아니하고
형일불고(刑一不辜)아니하셔
어여라 달고
그시대에 비생날
혀혹세계 그아니나가
어여라 달고
따우에 화위되고
화위후에 최병명세
풍세조훈 그리하기
다시어더 못보것데
어여라 달고
보고지고 보고지고
그리염를 보고지고
꿈상운림의 달빛을보고
꼬리안록을 비겨가
어여라 달고
청신을 흥흥호고
유언이 남았거든
측지사 정하도시
궁에나 저렁수게
어여라 달고

이러케하여 雜歌類는 地下로 도라갓는데 新體에 依하여 새머리는 淸歌를 向하고 말는 故鄕으로 定하얏다.

그의 歌는 淸歌는 五百年前朝라 國家를 慨歎하라는 목민에 長安을 想象하는 것이오 故鄕은 地上의 榮華도 잇고 寶相 어떤形도 잇고 時勢를 가지 念願하는 情勢도 잇는때문이다.

그러네 雜歌類는 如何한人物이냐 하면 그냥 村의 富農은 아니엇다. 그의 悲慘을 말하는 作者의 記述은 이러하다.

「최병도는 강릉바다에 재사로 유명하던 사람이라. 갑신년 변란나던해에 나히수물살이넘어된난데 그때 봉에 서울로 올라가서개화당에 유명한 김옥균을 차저보니 본래 김옥균은 어떠한 사람을 보던지 비범 특출히 정에 심통군이 손대접 하더시 너그러운 풍도가 잇는 사람이라.

최병도가 김씨를 보고 심복이 되야서 김씨를 대단히 사모하는 모양이 잇거날 김씨가 또한 최병도를 사랑하고 기이하게 녀겨서 텬하형세도 말하고 우리 ×× 정치득실도 말하엿더니 만히잇스나 우리 ××를 개혁할경륜은 엇더 최병도의게 말하지아니하얏더라. 갑신에 김옥균이 나가고 김씨가 ××으로 도망한후에 최씨가 시골로 내려가서 그 재물모흘기를 시작하얏는데 그 경영인즉 재물을 모와가지고 그 부인과 유순이를 다리고 문명한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야 지식이 넉넉한후에 우리 ××를 붓들고 빅성을 건지라는 경륜이라.」

젊은學生에게부치는글 ②

現代學生氣質 (上)

—내敎室의學生들에게—

延專敎授 李歇河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못한다.』내每日그대들에게 接觸하는니만치 그대들의 하나하나의 얼굴, 말, 表情, 몸짓의 하나하나의 動作 놋치지아니하고 잘理解한다. 어제밤의 「煩悶으로」 疲勞한 A君의 얼굴 오늘아츰 읽든 冊가운데 문득 發見한 새로운 驚異에 반짝이는B君의 눈 또는 인제부터 同伴나 戀人과의 거리에서의 約束에 마음이 바빠 校門박그로 달려가는 C君 D君의 뭄매—나는 이런것도 다 잘記憶한다. 그러나 이모든것에서 抽象되는것이 무엇이냐하는데이르러서는 나는 習慣 생각하지아니하면 아니된다.

이야기는 亦是 내가 每日實地로 느끼는데서부터 始作하는것이 조켓다. 이즈음그대들의 敎室에 들어 갈때마다 恒常 느끼는것이 하나잇는데 그것은 그대들의 얼굴이 例外업시 모다 몹시 아름답게 보인다는것이다 만큼

「얼굴의陳列」

이니 그가운데는 或은 찌그러지고 或은 삐뚜러저 美學의均衡을 가추지못한 얼굴도 잇스련만 어째그런지 하나하나이모두 한肖像畫처럼 아름답게보인다. 그래 어떠때는 이들 肖像畫를 鑑賞하고잇는냥하지 떠드러대는 그대들을 制止할 마음의 準備조차 이저버리는 境遇가잇다. 내게잇서 바야흐로 사라지려고하는 젊음이 아직 그대들에게잇서 貴엽한것을 부러워하는 마음에설까. 또는 그러하므로써한 瞬間이라도 나의 젊음을 延長시키려고하는 慾然에설까. 반드시 그러한것만갓지는아니하냐. 나는 現在 온世界를 휩쓸고잇는 커다란動亂의 이러난 이三年以來 때때로 그대들의얼굴을 우렷히觀察해본일이잇다. 그 無表情, 困惑, 突然, 憤慨, 抗拒, 沈潛, 默禱 나는 그동안 여러가지表情을 읽어와다. 그러고 이즘그대들의 얼굴가운데 읽는것이 기쁘니다. 그대들은 亦是 젊음의 아름답게 이커다란動亂을 受容하고 그結末도 그대들을 爲하여 조흔것이되리라고 樂觀하기로作定한것이다. 다시말하면그대들은

「새로운秩序」

가운데 가질수잇는 그대의 새로운 役割과 새로운 可能性을 잇고 期待하고잇는것이다. 새로운秩序안에서의 새로운可能性이라한는 勿論『就職』는 걱정하지안어요. 저는 滿洲가서 돈벌러이야요』하는때의 그대들의 抱負를 두고 말하는것은아니다. 그러면그것은 어떤것인가. 나는 여기그것을 감자기 的確히 定義해낼수는업다. 그러나『希望이잇는곳에 모든것이 새롭고아름답다』 그대들이 오날 내가 갓지 못한 새로운 기쁨과 希望을 가질것만는 事實이다. 생각하면도 막망이 그대야할 일이다. 來日파 온世界가 그대들의것이니어찌 큰기쁨과 큰希望을 갓지아니할것이랴. 願컨대 나날이 더큰기쁨과 希望을 가지고 살어나가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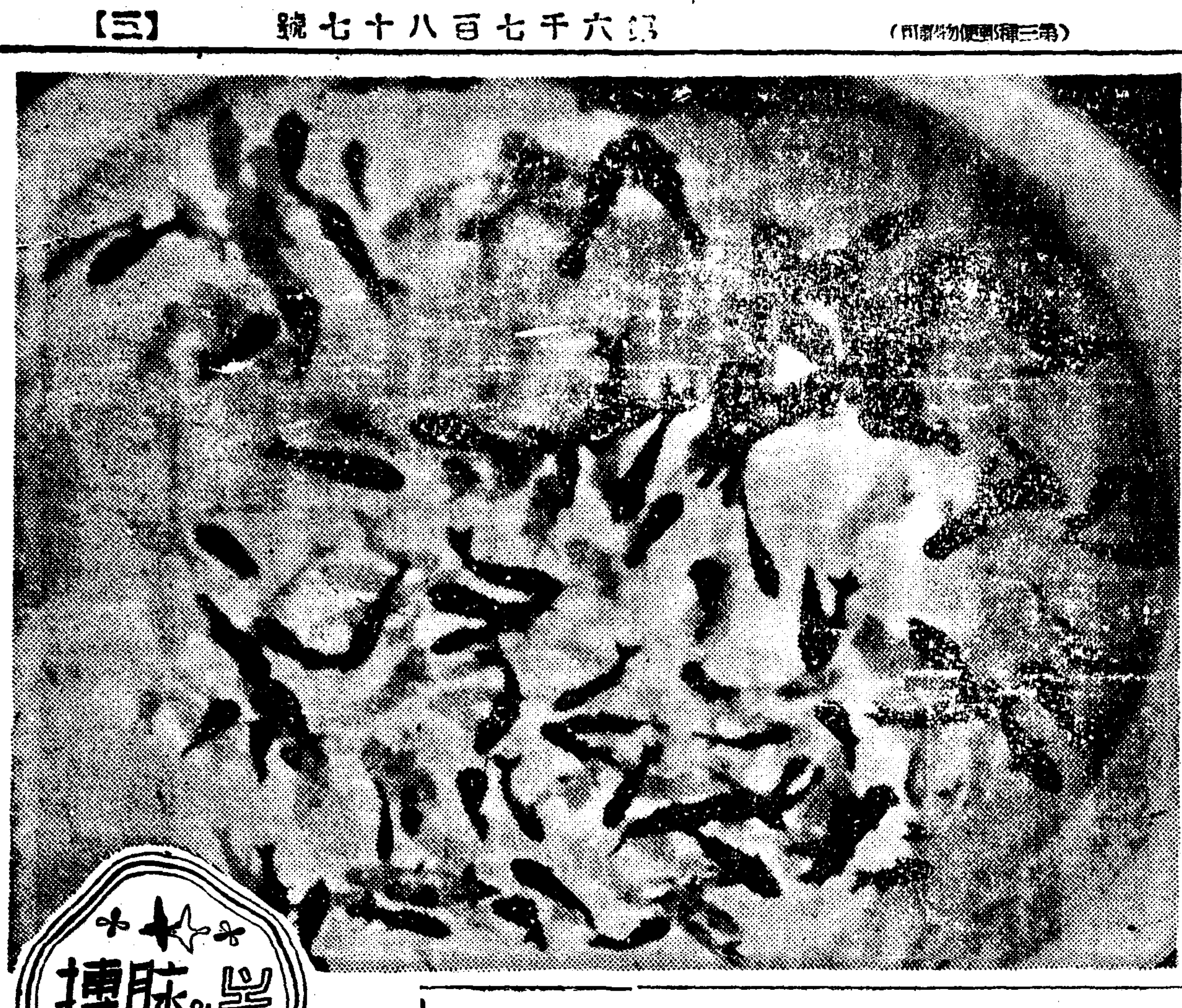
世界의귀

腦活動年中無休 제博士의新學說

【市俄古國際郵信】오늘까지는 睡眠中에는 腦의活動도 停止하므로 머리의 疲勞가回復되는것으로 一般는믿고잇섯는데 市俄古大學心理學敎授『타—프 제라—드』博士는 多年研究한結果腦의活動은 四六時中마치心臟의鼓動처럼 쉬는일이업다고 아해가지 發表하여學界에話題를 提供햇다.

『近代의科學的研究의 結果腦活動은 熟睡中이라도 쉬는것이업시 各腦細胞는 規則的으로 心臟의 鼓動가름活動을繼續하야 確實한波濤的『리듬』을가지고 活動하는것이 判明되엿다』

또 博士의研究에依하면從來의腦는 體重의百分之一『파—센트』도되지안으나 사람의腦는 平均體重의二『파—센트』로서 그組織은 極히複雜하고또 精巧하므로 머리가적은이는便보다 더活動에알맛다고한다.



所願

(譯詩) 크리스티나·로젯티 ⑤

아득하게 나려가는
저는 새엿드라면—
한번도려서도 다시금생각키는
노래엿드라면—
그러치안으면 바람결에스처서
나보기는 나리꼿그림자거나
지나가일모조리이처질
사랑의 속삭임의反響이거나
다시올리업슬수면서도
기다러지는 希望의記憶이거나

前衛美術의分化

—第10回獨立展을보고— (一)

在東京 金晚炯

나는이제 서로운 붓을들어 獨立展의 諸意義라는것이안이라 冷靜한態度로 第三者의立場에서서 이會의內容을 紹介하는意味로 몃마디 적어보랴한다.

帝展에서 二科가나오고 二科에서 獨立美術協會가 出生한지 十年이지낫다.

그동안 作品內容으로나 作家로나 몃마디로變化가 잇섯지만 미를놓으고 나려온것도適 形美術에잇서서의 새로운 分野의 開拓이엿다.

처번『獨立』의 깃발을들고 나섯슬때는『포—비슴』이 그主流엿다. 印象派時代의 洋畫가輸入된後 自然主義的 表面描寫를 일보삼아 個性을 沒却하고잇슬때『포—비슴』은人間의 本能의 世界를 發見하게해주엇다. 歐洲後『슈—르·레아리슴』이 輸入되여 이두主流가 並行해나오다가 第七八回展때에는 超現實派作品과 抽象派作品이 會場의 太半을 채우게되엿다.

그때의 이곳畫壇에잇서서는『슈—르』의 全盛時代엿다。外國作家의 模倣的 亂造를 보게된것도 事實이지만 前衛作家들는 確實히 우리에게 우리가 아직알지못하든 美의世界를 보여준것도 事實이다. 이『슈—르·레아리슴』과『아프트랏트·아—트』는 이제 큰藝術의 金字塔을 일루지는 못햇지만 그幻想的인 新感覺의 努力은 現代人의 視覺을 즐겁게해주어 孤立한 한藝術의『장르』를 形成하는것보담 오히려 一般社會生活로 넘리흘너들어가 商業美術을 爲始로 하야 建築 工藝 其他 各方面의 視覺美의 新領土를 엇게햇다. 이번十回展을앞두고超現實派의 元老格인 福澤一郞氏가 脫會를하야 새로 前衛繪畫團體『新文化美術協會』를 組織한것은 日本에 잇서서超現實主義도 再反省期에잇고模倣을 떠나 創作을 세우라는 模索期에 잇다고볼수가잇다.

生覺하건데 獨立會가 아즉까지 畫壇第一線에 서서 數十名의 젊은 主導者에 依하여임해나오것은『포—비슴』파『슈—르·레아리슴』의 두要素엿다。그들은 恒常젊고 기운찻나。勿論그사이에는 個人的한 形式的作品이나 直輸入的 模倣作品이 이畫壇을 支配한적도 잇섯지만 그것은 單純히 形式主義라 非藝術的이아니라오히려 어느文化面에서도 볼수잇는것과마찬가지로 한 發展過程으로써 不可避한 일이

"市內""各中學""入試問題"

培材中學 (續)

聽キ取 (一問)

僕ハ早速御社ニオ詣リヲスルコトニシマシタ。石段ヲノボリツメタトコロニ大キナ鳥居ガアツテ鳩ガ四羽トマツテヰマシタ。向ツテ右手ニハオ守ナドヲ授ケル社務所ガアリ左手ニハ參拜者ノ休憩所ガアリマシタツキアタリノ山ヲ背ニシテコンモリト茂ツタ森ノ前ガ御社デ今ハオ祭デモアルノカ拜殿ノ前ノ長イ旗ガ風ニヒラヒラトウゴイテヰルノガ見エマシタ。ナホ注意シテ見マスト山ノ上ニモ國旗掲揚塔ガアツテ日ノ丸ガヒラヒラメイテヲリ三台ノ飛行機ガ風ニ向ツテ勇マシク飛ンデ行クノモ眺メラレマシタ。

ユツクリ二回讀ムト 以上ノ有様ヲ繪ニカイテミナサイ。カンタンニ分ルヤウニ書ク時間ハ四分間

聽キ取 (二問)

風ハマダ寒イガ爭ヘヌモノデ濁イ青空ニハ春ノ國カラ生レテ來タカト思ハレル白イ雲ガホツカリト頭ヲ出シテ見ルノ〈大キクフクランデ輕ソニ浮ク。モヤラシイ靄ヲガフクラミカケタ枝ヲ包ンデ川ノ氷モ何時カ消エカケ雜草ガポツ〈芽ンデ來タヤハラカナ日ザシガタリ一パイニ降リソソイデ何トナシニ朗カダマブシク輝キナガラチヨロチヨロト流レクル水ノ音サヘナツカシイ。一段ト大キナハンノ木ノ間ニカブツタ白イ手拭ガ見エル。『オカアサン』弟ガ大キナ聲デ呼ンダ。立ツテシバラク此方ヲ見テ居タ母ガ笑ヒヲアゲタ。弟ハカケ出シタ。僕モ弟ノ後ヲ追フ。近ヅイテカラ弟ガ『オカアサン』ト言ツタ。四五日來モ走ツタノデアツクテタマラナイ。上着ヲ取ツテ樹ノ枝ニカケタ。川ノ少シ上手ニヨソノオバサンモセツセト何カ摘ンデヰル。僕等ヲ見テニツコリシタノデ僕ハ帽子ヲ取ツテオジキヲシタ。

二回ユツクリ讀ム

右ノ文中ドノアタリニ初春ノ感ジガ現レテヰマスカ。

時間五分間

一、人物ガ何人アラハレテヰマスカ

二、イツ頃ノアリサマデスカ

三、場所ハドンナ所デセウカ

時間四分

新刊紹介

▲新人間 三月號 發行所 京城府廣壽町八八 新人間社 振替京城一〇一一八番 定價十錢

▲文章 四月號 發行所 京城路寬勳町三層 文章社 振替京城三五〇七〇番 定價五十錢 送料三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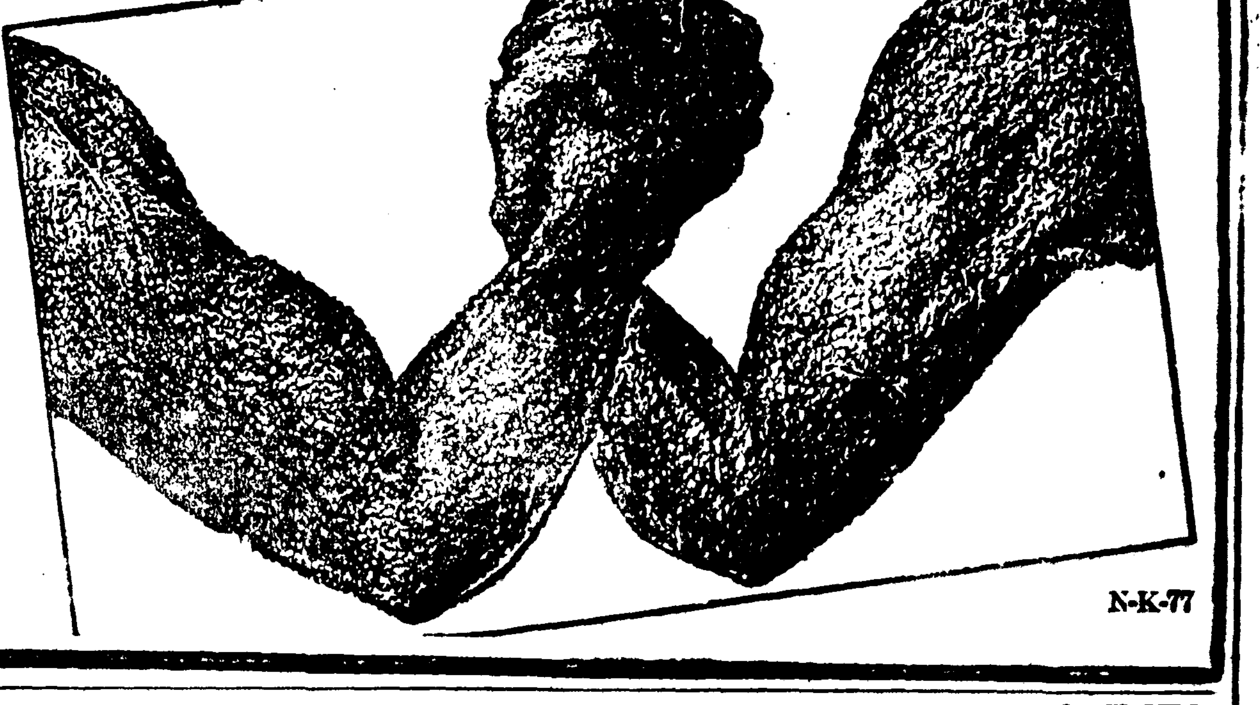
▲更生 三月號 發行所 廣島縣絲崎町日本赤十字社 廣島支部 絲崎保養所內 更生社 振替大阪七七三一番 定價十五錢 送料二錢

▲朝鮮實業 三月號(朝鮮實業俱樂部改題)創立第二十周年紀念特輯號 發行所 京城府明治町二丁目一〇〇朝鮮實業俱樂部 振替京城八五四〇番 定價五十錢 送料四錢

健康確保와 精力充實에

ネオスエー

네오스 에—



결핵체와선병질체 또는몸이허약하신분은 하보바삐 몸쇠약파피로됨을 곧회복식히고 食事와睡眠을잘취하게하여주는 活性요—도비타민劑「네오스·에—」로 치료하여주시사 건강의깃뿜을얻어주십시요

이와갓이卓効가잇는「네오스·에—」는 大量의요—도를 비타민A를풍부히가지고잇는濃厚肝油中에 코로이도장으로結合식힌것으로 從來의 이런종류의약파는달너 조곰도부작용이없이 병에對하여서만 强力的으로作用하여 병근과독소를저거하여주는同時에 全身의호르몬作用을왕성케해서 全身의細胞를新生賦活식혀주는 最新强壯劑입니다

☆主治☆

肺結核·肋膜炎·精力減退·유전매독·잠복매독·신경쇠약·만성위장병·高血壓·動脈硬化·허약체질·영양부족·기관지가다루등에특효함

네오스·에—약가
小 瓶………一圓八十五錢
百 粒………四圓三十錢
二百粒………八圓

고도모네오스(小兒用)약가
三〇〇錠………一 四
六五〇錠………一圓八十錢

그외에 注射用各種이 있읍니다
全道有名한藥店에서 販賣합니다
통지하시는대로三百頁의위생지식서류와시용약을본포에서거저드립니다

☆全道各地의有名藥房各位께急告!

國民健康의增進을 도모하기위하여積極的進出을하려하오니 많은撫賞와擊援을하여주시사貴店躍進繁榮의열쇠로 만들어주시옵기를바랍니다

東京市神田區神保町三 アルス藥品部 振替東京七一三一九

N-K-77

淋疾의短期根源療法割!!

內服으로淋疾을根治

…하며 生命을빼앗는不治難症의痳疾이라도하든丹毒、敗血症、中耳炎、疔瘡、創傷感染等々의모든連鎖狀球菌、葡萄狀球菌性疾患을百發百中으로根治해버리는『술파니ㅣㄹ아미도』의出現은 實로化學療法의領域에잇어서의劃期的功績이라할수잇습니다。本劑『루지—루』는 梅菌에對한『알제노벤촐』(所謂六〇六號)와『마라리아』에對한『기니네劑』의効力과갈이的確하며 急性慢性을莫論하고

數日間에滅菌·止膿

…等의藥效를發揮한다는것은 이미醫藥界를通하야實驗、確認된바입니다。本劑는 數多한類似藥이絶對로追從할수없는日本最大의科學的設備를갓인 弊社工場에서 嚴密한工程을經由하야製造한 純國産의純正한『술파ㅣ니ㄹ아미도』로서『팔아미노벤술혼아미도』라는化學的集成을가졋으며 그無比한特徵은

◎從來使用되여온色素劑가아니고非色素性임으로皮膚、粘膜、오줌을着色치않고

◎內服數日이면止膿과淋菌을消滅、消炎하며 오줌을말게하야 가장迅速徹底的으로病源으로부터根治해버립니다。

(用法) 一回一—二錠식을一日三回每食後에服用함

(國內價格) 二〇錠(一圓二〇)一〇〇錠(四圓八五) 粉末、二五瓦、五〇瓦、一〇〇瓦 注射五%二㏄五管、一〇管、五〇管

發賣元 大阪市道修町 株式會社 武田長兵衛商店 京城出張所 京城府南大門通三丁目一〇六

40(1)265

ルージル

루—지루

支那新政權과大陸經濟展望 ③

新通貨制度創設

東亞의互助連環體系

新通貨制度의 結成의 基礎條件으로서는 資本 商品의 流通 通貨의 聯繫를 들어야 하겟다 通貨는 元來商品과 資本의 流通을助成하는 手段임에도 不拘하고 貨幣制度를 어떠케構成할지 貨幣의價値를 어떠케 聯結시킬지 이두가지의 問題의解決 如何에依하여 商品이나 資本의 流通을 阻害하게된다 그러므로 日滿支 經濟聯關의 境遇를보면 滿洲 北支 蒙疆은 各其그政治組織에 適應한 獨自的貨幣制度를 가지고 日本圓에對하여 等價로써 聯繫하고잇다 其中滿洲國幣가 事實上으로 安定된 圓과의 關係에 서서 빼─關係에 置하는것과는 反對로 他의圓系通貨 聯銀券과 蒙疆券과는 새로운 通貨制度를 樹立하고 人爲的으로 圓과의 關係를 設定한것이어서 그形式的安定點에 對하여 事實上의 安定點이存在하고잇는것은 不得已한事情이다 그러나 事實上의 安定點은 相當히不安定한것이다 前年入超의趨勢, 圓系通貨의 發行累積傾向, 法幣의 依然한流通, 通貨의 外國租界를 通하는 輸出等의 諸條件에 加하여 根本的으로는 圓側에잇서서 새로운 圓系通貨의 價値를 維持하기爲하여 正貨乃至는 物資에依한 萬全의 援助를하고 自國에견딜만한餘力이업는것을생각하면 그것은 當然한 것이라고하겟다.

聯銀券의圓元빼─放棄論이 議會의 質疑에 出現된것도 聯銀券의 對外價値를 事實上의 安定點인 六片程度까지切下하여 日本經濟의 負擔을輕減시키려는 意味이엇섯다. 聯銀券이 圓元빼─로써出發햇던 可否를다시論할 것도업지만 그러타고 廣大한 作戰地域中인現在 이聯銀政策工作이 日本人區域에서는 成功하여스나 … 다。中文에서는 軍票化一色 … 치안흔要素가 經濟現象 … 配하게된다 그러면 新政權이 …

東亞建設을 …다는것은 一國家 存投資에對한形態와 第二義 三의切下를 … 點에 잇서서 … 現在의通貨에도잇는것과가치 … 貨政策을 … 수밧게는업 功하여스나 全支의占領地域을 모두綜合해서 생각해보면 聯銀券이나 蒙疆券은 … 策的性格이濃厚하므로 … 에 軍事行動이 … 안은 戰爭이 招來하는 正常 … 어떠한 … 는 目下 不明하나 적어도 當分間은 … 聯銀券, 蒙疆券은 … 보인다 … 貨에對하여 如左히말하엿다。

中國의 … 는 … 本의 貨幣統制下에 … 에對抗하기 爲하여 日本은 中國의 … 하여 實力을增加하는것보다도 도리어 … 게된다 이點도 英美佛 … 幣制策에 關心을가지고잇는줄은 明白할것이다 그러므로 中國을爲해서 말하면 中國은獨立自主的幣制를가지고 그리고日本보다 正常하게 發展할必要가잇스며 日本은이것을 爲하여 協力援助할必要가잇다 그리고 林氏는 具體的으로 新通貨의 性質을 明示하지는 안엇스나 小笠原三九郞氏도議會에서의 質問에잇서서 中央政府의 新通貨를 圓과 빼─로써 링크하는것은 不 …

… 되나 … 하여야할것이다 … 매우 消極的인 … 되엇스므로 이境遇에는 … 解決策을 … 하여야할것이다 … 여 多大한制約을 밧지안흘수 업다 日滿支經濟 … 하고 北支만을 … 수밧게업는것은 … 또蒙, 北支에 特殊性을 認定하게된것은 이러한 事情에 基因된것으로 생각된다 새로운 中央政權과 이特殊地方과의 關係는 所謂 分治合作의 形態를 取하게되는것이나 將來에는 中央政權下의 各地域은 經濟産業的으로도 獨立하는것이 必要한데 그것은 반드시 不可能한것은 아니다 그前提로서는 現在와 가치 膨大한戰爭消費의 現 … 가아니면안될것이다。(終)

(寫眞은 上은華興券, 下는聯銀券)

鮮銀券又復大膨脹

四億四千四百萬圓臺로增發

高記錄을連日更新!

鮮銀券은 二十五日繼越에잇서 四億四千二百八十三萬八千圓臺로 增發되어 今年中의最高記錄을示現하더니 二十六日繼越에잇서서는 또百九十二萬五千餘圓이激增되어 四億四千四百七十六萬三千圓臺로 新記錄을지엇다 昨年十二月二十六日의 四億五千五百三十九萬八千圓臺가 지금까지의鮮銀創設以來의 最高發行高이엇는데 이에比하면 아직 一千餘萬圓의低位에잇스나 連日 一, 二百萬圓式 增發되는것은 자못注目된다

限外三千萬圓突破

鮮銀券의大膨脹으로 二十六日繼越의限外發行은 三千萬圓臺를突破하여 三千三百三十七萬八千二百六十八圓五十七錢이엇는데 前日보다 三百六十六萬四千圓이늘엇다

通貨收縮에努力

◇…星野鮮銀理事談

今日또本年中의 最高記錄인四億四千四百萬圓臺로 膨脹되엇스나大體이것이 絕頂이아닐까한다 必要한程度以上으로 通貨가膨脹되는것은 警戒할일로 通貨回收에 萬全의策을쓰고잇다 勿論昨年最高記錄을突破하는增發은 업슬것으로본다

皮의使用消費와 自由販賣不許

『皮革配給統制令』改正

廿七日公布·四月十日부터實施

總督府에서는 時局에 鑑하여 皮革資源의 確保를 期함에잇서서 一層遺憾이 업게할과 同時에 이것의 配給統制의 强化徹底를 期하기爲하여 三月二十七日附 府令第二十九號로써 昭和十四年 朝鮮總督府令 第二十一號(昭和十二年法律 第九十二號第二條의規定에 依한 皮革의配給統制에關한件)를 改正하고 四月十日부터 施行케되엇는바 同令改正의要點은

(一) 現行同令의規定에依한皮革中 馬에驢及騾의包含與否와 羊에緬羊及山羊의 指示與否等皮及革의字義에對하여 明瞭치못하엿스므로 同令第一條及第二條를改正하여 이것을明瞭케한것

(二) 現行同令第二條의 規定에依하면 販賣의目的을가지고牛, 馬, 羊又는豚을 屠殺한者에限하여 同條의適用을 受키로되어잇는바 朝鮮에잇서서는 아직一部에서 豚의自由屠殺(屠場外屠殺)이實行되고 또豚皮를 食用에供하는 慣習等도잇는關係上 此等의剝皮와 皮의處分을 自由로放任함에잇서서는 有用한 皮革資源의利用上 實로遺憾일뿐아니라 一面濫着實効를 擧하고잇는 原皮의配給統制上에도 支障이 不少하여 同條를改正하여 販賣의 目的與否에不拘하고 牛, 馬, 騾, 驢, 緬羊, 山羊又는 豚을屠殺한者는 特別한事由에依하여 道知事의 許可를바든境遇를 除外하고는 그皮를使用或은 消費키나 또는屠肉에附着한대로 販賣하지못하게한것

(三) 現行同令第四條의 規定에依하면 皮의生産者는 前月中에販賣한皮의 販賣數量等을 每月十日까지에 道知事에게 屆出함을要하게되엿는바 前述第二條의改正에伴하여이屆出은 多少煩雜하므로同令第四條를 削除하여 可及的으로 當業者의 手續을 省略케한것等이다

朝鮮總督府令第二十九號

昭和十四年朝鮮總督府令第二十一號(昭和十二年法律第九十二號第二條의 規定에依한 皮革의配給統制에關한件)中 如左히改正함

第一條 本令에잇서서 革이라 稱함은 牛(黃牛를含함), 水牛, 馬, 騾, 驢, 緬羊, 豚, 鯨又는 鮫의皮를 鞣製한것을이름

第二條 牛, 馬, 騾, 驢, 緬羊, 山羊又는 豚을 屠殺한者는特別한事由에 依하여 道知事의許可를 受한境遇를除한外그皮를使用或은 消費하고 又는屠肉에附着한대로 販賣함을不得함

第四條削除

附 則

本令은 昭和十五年四月十日부터 이것을施行함

北支로輸出

種租七千五百石

그대신 中支米六千石迴送

昨年의水害의 뒤를이어 今年度의 北支食糧對策에關해서 興亞院華北聯絡部及 北支軍當局에서는 此際에 日本人에게 適合한 米를北支에人栽培하여 優良品種의 適地適種主義에 依하여 大陸의食糧自給自足을 圖하고저 前부터 技術官을 全國에派遣하여 調査中이던바 東北産의陸羽一三二號와 朝鮮産의 陸羽一三二號, 中生銀坊主, 愛國種의四種을選定하고 北支地方의 治安工作上의 重要性도 力說하여 內地及 朝鮮總督府當局과 折衝한結果, 兩者의全幅的協力下에 그種租의搬出이 正式으로 決定되엇다 數量은 北陸産陸羽는 山形縣常盤, 玉野의 二個村에서 種租로서 一千二百五十俵, 朝鮮租는 鎭南浦에서 中生銀坊主四千五百叺, 愛國種四千五百叺 多獅島에서 陸羽一三二號 四千六百叺, 合計(石換算)七千四百八十石으로 各各 이미 現地에向하여 發送되어 드디어 大陸에 內鮮優良種租가 輸出케되엇다 現地에서는 興亞院軍部及 軍糧城稻穀會社等 軍官民一致의 態勢를整備하고 이것을 旣設優秀水田에 配布하여 三十萬石 以上의 白米를 獲得할 方針인데 北支食糧問題解決에 重大成果를 齎來할것으로 크게 期待되고잇다 또朝鮮産種租提供에對하여는 中支軍의 特別好意로 中支米約一千噸(六千石)이 迴送되게되어 朝鮮側의 食糧需給計畫에는 支障이업도록 考慮하고잇다

鮮銀券發行高週報

一、銀行券總發行平均高(自三月十七日 至三月廿三日) 四三四、二一四、三三七

內制限外發行高 二六、三九〇、九〇〇

正貨準備發行平均高 二四七、八三三、三七七

保證準備發行平均高 一八六、三九〇、九六〇

二、週末銀行券發行高 四四二、八三八、一七五

朝運代行營業所

本社直轄로變更

六百餘店昇格實現

朝鮮小運送業統制令實施에 伴하여 朝鮮運送에서는 全朝鮮의現在同社의 代行營業所는 營業所로 營業所는 出張所로 出張所는 支店으로 모두昇格하여 本社直轄下에 두기로 되고 朝鮮小運送業의 基礎的 確立을 보게되엇는데 右機構改革으로 昇格하는 各代行營業所 營業所出張所는 約六百店에達한다

記念行事簡素

朝鮮運送에서는 來五月十六日同社創立十周年記念事業에對하여 計畫中이던바 時局을考慮하여 記念行事는 極히簡素히하기로 決定하고 當初計畫한 同社創立의 功勞者에對한 表彰는 中止하고 記念品을 贈呈하는程度에 그치고 表彰하는同時에 當日은 簡單한 記念式을 擧行하기로되엇다 十周年勤續社員에 對해서만 …

朝鮮米認識向上

◇…菱本鮮米協會理事談

朝鮮米協會 菱本理事는 二十六日 來京하엿는데 總督府에서 內地의 米穀事情에 對하여 如左히말하엿다

內地에잇서서의 米의 狀況은 자못不徹底한 一方都會를通하여 米穀의消費는 增加되엇스므로 今後의米穀需給은 樂觀을 不許하나 外米의買付에 成功하엿스므로 決코不安은업고 또節米를 通하여 徹底的으로 節米하게된것과 米穀需給狀態는 漸次好化될모양이다 朝鮮의 旱害에對한 一般의 空氣는 자못同情的으로 先般大日本米穀會社主催로 斯界의權威者들모아 臨時米穀對策을 協議한때에도 大體朝鮮에서 百五十萬石의 米를가저오는것은 無理이고 五十萬石以上移入하지 안는것이 조치안을가하는 意見이잇는것도 一例인데 이러케同情的으로 보고잇고 또朝鮮에서 大增産을하여 日本의米穀問題를 解決하는 것이라는 소리가有識者間에强하게擡頭하고잇서 이凶作을 通하여 內地의朝鮮認識은 非常히 昂騰된것이다 또朝鮮米의移入에 對하여 調製가不統一하여 一部에서議論이잇스나 이때에그러한 말을할것은아니고 最近은 不良米라도 移出하여달라고 하고잇는程度이다

全朝鮮自轉車 小賣商組聯創立

全朝鮮自轉車小賣商組合聯合會에서는 二十五日午前十時부터 京城商工會議所에서 內山京城自轉車商工組合理事長外 全朝鮮十五團體代表者等約七十名이 出席下에 創立總會를열고

一、規約制定의件

一、役員選擧의件

一、全朝鮮統一小賣希望價格申請의件

一、商品配給機構에關한件

一、各組合提出議案審議의件(鐵原輪友會提出 全鮮各地에小賣組合을設置하는件外七件)

을附議決定하고 同四時지나 散會하엿는데 同聯合會長에는 京城自轉車商工組合理事長 內山定從氏가 就任하엿다 또同聯合會는 物資의 確保及 平衡을 期하고저 仕入 販賣 修繕料共히 全朝鮮的價格을 統一하여 그配給에 圓滑을 圖함을 目的으로 將來商業組合에依한 組合에까지 나갈方針이다

北支서棉花增産

八十萬畝擴入決定

日滿實業協會 朝鮮支部에의하면 北支의 昨年度의棉花出額은 極度의 減産을招來한데 鑑하여 華北棉花改良會에서는 本年은 一千萬피클增産計畫 第二年度에 該當하므로 愼重히 그 對策을 考究中이던바 棉作面積 八十萬畝를 擴大하기로 決定하엿다 右計畫에 依하면 河北省四十萬畝, 山東省二十萬畝, 河南省十萬畝, 山西省十萬畝로 그 種子配給에 對하여는 自給을圖하는一方 冀東地區及山西省分은 朝鮮에서 七十八萬斤을輸入하고 補給을하기로 되엇스므로 本年度의棉花는 大增産이期待되고잇다

日滿實業協會 朝鮮支部에서는 … 創立總會를 開催하고 京城商工會議所에서 … 準備하고

一、定款制定件 一、役員選任件 一、初年度豫算承認(一萬八千六百五十圓)件 一、其他等을附議決定하고 同五時散會하엿는데 初代理事長에는 佐佐木日本綿花株式會社 京城出張所長이就任하엿다

漁網製造會社

設立協議會開催

朝鮮의漁網의 自給自足을目的으로 設立의準備를하고잇는 朝鮮漁網製造會社(假稱)의 設立은 具體化되어 民間側의 協議會는 內鮮에잇서서의 漁網製造業者, 燃絲業者, 紡績業者等 約三十名出席下에 二十六日午後一時부터 府民館에서 開催하엿다

朝鮮纖維元卸商

組合創立總會

朝鮮內의 纖維雜貨類와 旣製品類一切의 元卸賣業의 改良發達을圖코저 朝鮮纖維雜貨元卸商組合에서는 二十六日午後三時부터 組合에서 …

鑛業振興出資者

朝鮮에잇서서의 特殊鑛物의開發을 目的으로하는 朝鮮鑛業振興會社는 一般民間有力會社의出資에依하여 設立하기로되엇는데 出資者의 主要한것은 如左하다

三井, 三菱, 住友, 日鐵, 日鑛, 殖銀, 東拓, 鮮銀, 小林鑛業, 日窒開發

改正商法講演會

京城商工會議所에서는 廿六日 午後一時부터 第二會議室에서 … 西原寬一氏를 招聘하여 改正商法에 關한 講演會를開催하엿다

鰮粕油價格制定

梶川水産課長渡東協議

朝鮮産鰮粕油는 內地가 顯著하게 朝鮮보다 割高이고 一方朝鮮은 價格統制로 內地에 追隨할수업서 結局業者는 一齊賣惜態度를 取하고잇스므로 이것을 原料로하는 業者는 顯著히 苦境에 빠지고잇는데 過般 總督府 殖産局長이 渡東하여 農林省에 適正價格의 設定을 協議한 結果 農林省에서도 可及的速히 그價格制를 確立하기로 方針이 決定된바 이價格制定은 朝鮮에도 重大한利害關係를 가지고잇스므로 梶川水産課長은 二十六日 渡東하여 價格制定에對해서 內地側과 協議를하고 萬遺憾이업기를期하기로되엇다

內地向鰮粕代金 公定決定後決濟

內地向鰮搾粕은 二月一日以降三菱의손을 通하여 全部有機肥共販社에 納入을보고잇는데 內地의 鰮粕公定價格은 未決定이나 大體十二圓五十錢으로 農林省의 諒解를 어덧스며 그代金의決濟는 內地에잇서서의 公定價格決定後로 될터이다 一方朝鮮의鰮粕은 九·一八價格停止令에依하여 七圓二十五錢에 依然釘付되고잇스므로 此間의 矛盾에對하여는 業者方面에서도 相當히問題되어잇고 關係當局의 處置가 注目되고잇다

銀製品도 買上開始

前年末 金은 全國的으로 實行하기로되엇다。銀은金보다도 一般家庭에 保存되어잇스므로 銀買上은 各家庭에 關係가잇는것이다。그러면 大體로 銀의 買上은 어째서實行하는것인가? 金買上은 時局下要求되는『物資』의 供給은 生産力擴充外에 外國으로부터의 輸入에 依存하게되는데 物資를 輸入하면 반드시 支拂金이 必要하다는것은 우리가 物品을 購入할때와 갓다。이 支拂金은 結局『金』이아니고는 안되므로 金을政府에서 所持하고잇는것은 國策遂行上有利한것이다。銀은어 金과同樣으로 外國으로부터 物資를 買入하는代金이 되는一方 對外取引上 매우 有用한데 今般은『銀』을 政府로集中시키로되어 이미戰時物資活用協會에서大藏, 商工, 內務三省及 精動의 後援을어더 먼저東京市 日本橋區를 筆頭로 漸次로帝都 全部에亘하여 銀을買上하고 또境遇에依해서는 正貨準備의 一部로도되는것이다。그러므로 銀을政府에 集中시켜두는것은 業完遂에有用한것이다。協會에서는이러한 趣旨로서 銀을 政府에 팔도록 그斡旋을 시작한것인데 銀은 웬만한 家庭에는 반드시잇는것이며 또銀으로만든 物件은 꼭銀이아닐지라도다른것으로라도 充分히 代用할수잇는것이므로 一般家庭에 이銀買却을 一層勸誘코잇다。家庭에잇는 銀製品은매우種類가만코 우리들에도 裝身具로서 重要한 銀製品을들어보면

裝身具=時計側, 鎖, 메달, 가락지 반지비녀等 化粧用具=콤팍트等 喫煙具=시가렛트케─쓰, 煙管, 재트리 담배합等 食器類=접시 菓子器 커─피셋트 茶器等 室內裝飾品=花瓶 賞盃 寫眞틀等 文房具=文鎭 샤─푸펜실 펜 1파─나이프等

以上과가치 例를들라면限이업고 또此等中의大部分이 銀이아니면쓸수업는것은 매우些少하며 또이銀을 死藏하지말고 政府에 팔면 國策遂行上에 役割을하는 것이므로 누구든지 이運動에贊成할것이다。그러면銀買上은 目下東京市內에서 미리時日과 場所를定하여 그리로持參하는 銀製品을 現金으로서 買上하고잇는데 銀의鑑定은 協會에서委囑한 鑑定委員이 專門的으로하고 希望에依해서는 特別鑑定이나 分析까지하고잇다 代金은 政府에서 一匁十七錢五厘五毛(一匠四十六圓八十錢)으로決定되어잇스므로 이價格으로 協會에서 買上하여 다시그價格으로政府에 買却하는것이다。前般에實行한日本橋區의買上은 매우成績이조햇스며 記念品을持參한者가『物件은업서질지라도 記念의 참된 精神을 잃지 안흘것이니 國家에 奉公하게 되는것을생각하면 滿足하다』라고말하엿고 女人들이 콤팍트等을 賣却하는等 係員을 感激시키고잇다。

今日財界 廿六日

◆米穀(京城, 公定價) 正租(金)銀坊主三等 [illegible] 玄米(金)銀坊主三等 [illegible] 七分搗白米小賣價 [illegible]

◆雜穀(京城, 都賣價公定) 大麥 [illegible] 裸麥 [illegible] 粟 [illegible] 大豆 [illegible]

◆株 朝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鐘新 [illegible] 鐘紡新 [illegible]

◆商品(先限單位錢·圓) 大阪 棉花 [illegible] 綿布 [illegible] 絹絲 [illegible]

一言

▼…金도가저서는안된다. 銀도가지지마러라.

▼…때는戰時이오 生活은 最低限度로 하여야한다. 金銀부치가 무슨所用인가。

▼…消費節約은 더철저히 하여야 된다。…

▼…왜이리만히다니나 『일이만허것다』는것이 明答인모양。

▼…土地, 鑛山뿌로카의 일이 적지안흔모양인데 이런것은 時下絕滅을期해야한다。

▼…너나할것업시 生産擴充에 進軍하자。

▼…千圓單位가 百圓單位로 이러다가는 千圓紙幣發行의 必要가 생길지경。

▼…칠한間에 千圓소리가나는세상이니 한숨이나온다。

▼…고무풍선가치 부른 『인풀레』 抑制하자。

今日의市勢 二十六日

株式 消極傍觀 凡調

前場凡調 今朝는 東新不變인 百三十九圓七 鐘新五高인 百七十一圓七 … 寄付된後 모두 傍觀氣分으로 閑散하다가 結局東新百二十三圓八 鐘新百十一圓四 朝新二十三圓丁에大引

後場不變 後場는 東新不變인 … 鐘新四圓低인 … 寄付後 不變모양이엿다

議會後注視

議會는 今二十六日로써 終幕을告하고 二十七日에는 閉院式을擧行하게되엇는데 議會가 別로 큰材料를 提供하지 못하엿스나 보아도알것과가치 諸問題가 具體的으로 表面化하는것은 議會後의일이고 또通過된 諸法案도 今後의推移를 注視할것이므로 當限의重壓이 除去되고 新支那政權이 正式成立을 보게된다하면 若干活氣를 加하게될것이라는 希望的觀測도 잇스나 結局은上下間에 아직警戒를 기피하고잇는 것만은 事實이엇다 … 잇다 그것은 議會가『無事』終了되엇다 할지라도 齊藤問題를 … 東新은亦是百四十圓關門附近에서 浮動을 거듭하고 …

實物市場擴充

朝鮮取引所에서는 最近의實株取引의旺盛에 鑑하여 實物市場의 擴充强化를 計畫하고 이에 伴하는 定款의 改正에 對하여 이미 總督府의 認可를 어든바 … 現物店 秋田 三和 北村及 山一 野村 藤本各支店으로해서 實物取引員組合을 結成한바 二十六日에以上六店의 實物取引員新申請書를 總督府에提出하엿다

株…議會가 終了되엇스나 조금도 市場은明朗化되지못하여 百年一日과가튼膠着 ▲月末은 恒例的으로 兌換券이大膨脹을 示할것을보아도 金緩의 基調는 依然進展 ▲그러나 環境을無視하는 買氣가永續理도업서 大保合觀이濃厚 ▲猛烈하던 地株買도 利喰으로 一息모양이니 月末에나 期待를 가질수밧게

生産、株價指數

事變以來漸騰

待望하던 新支那中央政府는 드디어 三十日에 新生하기로決定되어 支那事變의 解決에向하여 一段進展하게되엇는데 따라서 生産力의擴充이 今後도緊急不可缺한 問題로되엇다 그러나 經濟에 重要한 大陸經濟의開發은 我國에잇서서의 第三國貿易의 確立과 今後의 動向如何에依해서는 原料及生産力擴充資材의不足은 依然히 緩和되지 안코 延하여는 豫定한生産力擴充이 遲延될 事情으로 될지도 알수업서 前途는 매우 注目된다 昭和十二年來의 製造工業(纖維以下二十四種) 鑛業 (金以下五種)의 各生産指數를 보면 各指數가모두 年末로부터 年初에 걸처서 急落되고 三、四月에 反騰되엇다가 八、九月에 再落되고 年末에 또昂騰되엇는데 大體로生産力擴充이 進展됨에따라 鑛業機械工業等時局産業中心으로 漸騰步調를거듭하고잇다 이에對하여株價總指數는 生産指數와 同一步調는 아니지만 亦是一般好景氣의 刺戟을바더 漸騰되엇다 昨年十二月現在의 指數를 事變勃發直前인 十二年六月의 指數에比하면 總平均生産指數는 一割一分三厘, 株價總指數는 一割四分七厘의 各其昂騰이엇다 昭和十二年年初以來十四年末까지의 製造工業, 鑛業總平均의各生産指數(商工省調査=昭和六、七、八年平均을 一〇〇으로함)와 東株株價總指數(東株調査=大正十年一月을 一〇〇으로한것)의 經過를보면如左하다

	製造工業平均	鑛業	總平均	株價總指數
十二年一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八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九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一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二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三年一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八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九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一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二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四年一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八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九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一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二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現物一高一低

朝鮮物產을中心으로 連日機騰을 示하더니 今朝에 이르러서는 利喰으로一息을表示하여 區區한商狀이엇다 이로써 浮動株價도 一服되엇다고보는側이만코 堅實株에로의移向이 보이려는氣勢가잇는데 高周波新, 小林新等은 大體로安定된모양이엇고 막비新은 四十八圓大으로 强調이엇다

今日現株市勢 (正午調)

◇朝鮮內株式 鮮銀新 [illegible] 殖銀新 [illegible] 朝鐵 [illegible] 大同產業 [illegible] 京春鐵 [illegible] 同四新 [illegible] 朝陽鑛 [illegible]

延取 亦是不成 一休商

前場無賣買 今朝도 依然 賣買가업섯다

後場不成 後場도 無活氣로 賣買가업섯다

東京國債

▲甲號五分一〇一、〇▲四分一〇三、七〇▲四分一〇三、六五▲二十三年物九八、七〇▲二十八年物九八、二〇▲佛貨四分一九四、五〇

◆東京株式 / ◆大阪株式 / ◆滿支株式: [illegible]

海外經濟 廿五日

ム 아나 一株 [illegible] / 工業株卅種平均 [illegible] / 鐵道株廿種平均 [illegible] / 米棉 現物 先限 平均 [illegible] / 印棉 平均 [illegible] / 生糸 [illegible] / 倫敦金塊 一온스 [illegible] / 紐育金塊 一온스 [illegible] / 倫敦銀塊 一온스 [illegible] / 紐育銀塊 一온스 [illegible] / 倫敦砂糖 [illegible] / 玖馬砂糖 [illegible]

銀行券 廿五日

◆朝鮮銀行券◆ 發行高 [illegible] 正貨準備 [illegible] 保證準備 [illegible] 限外發行 [illegible]

◆日本銀行券◆ 發行高 [illegible] 正貨準備 [illegible] 預金高 [illegible] 貸出高 [illegible] 限外發行 [illegible]

金利手形交換

◆東京金利◆ 日物 [illegible] 翌日物 [illegible] 無條件 [illegible] 月越 [illegible] 商業手形 [illegible]

◆大阪金利◆ 日物 [illegible] 無條件 [illegible] 月越 [illegible] 商業手形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枚數 [illegible] 金額 [illegible]

◆東京手形交換高◆ 枚數 [illegible] 金額 [illegible]

◆大阪手形交換高◆ 枚數 [illegible] 金額 [illegible]

對外爲替

對米 百圓에 二三弗一六分七

對英 一圓에 一志二片二六分七

以上朝鮮銀行賣

株式

◆朝鮮取引所◆ 新朝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 ◆大阪長期◆ / ◆東京短期◆ / ◆東京現株◆ / ◆朝取短期取組◆ /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棉花 (呼値百斤單位錢)

大阪 三月 四月 五月 六月 七月 八月 九月: [illegible]

綿布 (呼値一反單位錢)

大阪 三月 四月 五月 六月 七月 八月 九月: [illegible]

生糸 (呼値一斤單位錢)

橫濱 [illegible] 神戶 [illegible] 先限 [illegible] 現物D格 一六圓二〇

鰮油粕·麥粉

◆阪神鰮粕◆(十貫) 大羽二等 [illegible] 檢 沖渡 [illegible]

◆阪神鰮油◆(百斤) 阪神FOB沖 [illegible]

重石·水鉛
金銀買入
三昌鑛業所
京城南大門通二の十一
(朝鮮信託前)
電話本局三〇二五番

三國志

韓龍雲 譯
熊超 畵
(140)

秉燭達夜와五關斬將

관공이 사례하고 가매 조조가 장요에게 묻되

『내가 운장 대접하기를 박하게하지 안하되 항상 갈 생각을 품으니 어찌하리오』

『내가가서 그마음을 아라보리라』

이튼날에 장요가 관공을 가서보고 말하되

『내가 형을 천거하여 승상에게 잇게하엿는데 어떠하뇨』

『승상의 두터운 은혜를 기피감사하거니와 다만 나의몸은 여기잇스나 마음은 황숙을 생각하여 조금도 생각에 떠나지 안노라』

『형의 말이 틀리도다 세상에 처하매 가볍고 무거운것을 분간하지 안는것은 장부가 아니라 현덕이 형을 대접함이 반드시 승상에서 지나지못하거늘 무슨연고로 항상가기를 생각하너뇨』

『나도 진실로 조공의 나를대접함이 심히 두터운것을 모르는것이 아니다 내가 유황숙의 두터운 은혜를 바다서 가치죽기를 맹세한지라 가히 써버릴수가 업는고로 내가마침내 이곳에 머므를수가 업고 공의 은혜를 가픈연후에 가리라』

『만일 현덕이 이세상을 떠낫스면 공이 어디로 도라가리오』

『원컨대 황천으로조처가리라』

장요가 마침내 공을 머므를수가 업는줄을 알고 물러갓다 장요가 도라가 조조를보고 실상으로써 고하니 조조가 탄식하되

『주인을 섬기되 그근본을 엇지아니하니 천하의 의잇는선비로다』

순욱이 말하되

『운장이 말하기를 공을 세우고서야 바야흐로 가겟다하니 만일 저로하여금 공을 세우지 못하게되면 반드시 가지 못하리라』

조조가 그러히 여기엇다。

현덕이 원소에게 잇스면서항상 걱정으로 지나더니 원소가 말하되

『현덕은 무슨연고로 항상 근심만 하너뇨』

『두 아우는 소식을 알수업고 처자는 조가도적에게 붓자펴잇는지라 위로 능히 나라를 갑지 못하고 아래로능히 집을 보존하지 못하니 어찌능히 근심치 아니하리오』

『내가 군사를 나어가 허도에 부맛고자 한지가 오라더니 방금 봄이 따뜻하야서 정히군사를 이르키기 조토다』

의할새 전풍이 간하되

『전일에 조조가 서주를 칠때에 허도가 비엇거늘 아니하고 이제 이미 서주를 파하매 조조의 군사가 바야흐로 강성하니 가벼히 대적하지 못할지니 오래잇다가 그틈을 기다린연후에 가히 움직일지로다』

원소가 『내가 생각하야 보리라』하고 현덕에게 묻되

『전풍이 나를권하야 굿게 지키라하니 어떠하뇨』

『조조는 임군을 속이는 도적이라 공이 만일 치지아니하면 천하에 일흠을 잃을까 두려워하노라』

『현덕의말이 심히 올토다』

하고 드되어 군사를 이르키려하니 전풍이 또 간하거늘 원소가 노하여 말하되

『너의무리는 글만 회롱하고 호[illegible]을 가벼히여겨서 나로하여금 큰의를 잃케하는도다』

전풍이 머리를 두다리며 간하되

『만일 나의 조혼말을 듯지아니하면 군사를 나어감이 이롭지 못하리란』

원소가 노하여 베이고자 하더니 현덕이 힘써 권하여 옥중에 가두엇다。

저수가 전풍의 옥에 가치는 것을 보고 일가들을 모아서자기 재물을 허터주고하직하되

『내가 군사를 따라가매 이기면 위엄이 더하지 아니할데가 업슬것이오 패하면 한몸을 보조할수가 업스리로다』

하니 여러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보내엇다。

원소가 대장 안량으로 선봉을 삼어 백마(白馬)를 치게하니 저수가 간하되

『안량은 성품이 좁어서 비록 날내고 용맹스러우나 가히혼저 맥길수가 업스리라』

원소가 말하되

『나의 상장을 너의들의 가히 헤아릴바가 아니란』

하얏다 대군이 나어가 여양에 이르니 동군태수 유연(劉延)이 급함을 허창에 고하니 조조가 군사를이르켜 대적할것을 상의할새 관공이 그것을드럿다 보고 말하되

『드르니 승상이 군사를 이르킨다하니 내가 전부가 되기를 원하노라』

조조가 말하되

『감히 장군을 수고롭게 할것이 아니니 조만간에 일이잇스면 마땅히 청하리란』